

2023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사)아시아교정포럼  
춘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알코올 및 마약 중독과  
범죄자 처우

일 시 : 2023년 3월 24일 (금) 14:00 ~ 18:00

장 소 : 서강대학교 페이야르관 308호 대회의실 / ZOOM

■ 주 최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시단 **아시아교정포럼**  
법연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후 원 :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사업단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 2023 생명문화연구소 · 아시아교정포럼 춘계 공동학술대회

## 알코올 및 마약 중독과 범죄자 처우

2023. 03. 24.(금)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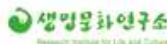
서강대학교 페이아르관 308호

ZOOM : 회의ID 899 7911 0683 (암호 2023)

\*사회 : 차유경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개회	14:00-14:30	개회사 : 강선경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장) · 신연희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 학회장) 축사 :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
시상	14:30-14:40	제2회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상 시상 : 이백철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 수상 : 박현나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대학교)
발표1	14:40-15:10	<b>알코올 섭취와 성범죄 발생 관계에 관한 연구</b> <발표> 김병배 (경기대학교)
논평1	15:10-15:20	<논평> 노일석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과)
발표2	15:20-15:50	<b>청소년 마약비행과 처우를 위한 제언</b> <발표> 박선영 (한세대학교) · 박현나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대학교)
논평2	15:50-16:00	<논평> 배성희 (법무부 소년보호과)
휴식	16:00-16:20	
발표3	16:20-16:50	<b>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 과정 : 20대 청년을 중심으로</b> <발표> 최미경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논평3	16:50-17:00	<논평> 박소연 (경기대학교)
발표4	17:00-17:30	<b>아동 청소년의 음주와 스트레스의 관계</b> <발표> 김광현 (서울대학교)
논평4	17:30-17:40	<논평> 양해경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종합토론	17:40-18:00	질의응답 및 토론
폐회	18:00	

주최



후원



## 2023 생명문화연구소·(사)아시아교정포럼 춘계 공동학술대회

- 주 최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사)아시아교정포럼
- 후 원 : 한국연구재단 · 서강대학교
- 주 제 : 알코올 및 마약 중독과 범죄자 처우
-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오후 2시- 6시
- 장 소 : 서강대학교 데이아르관 308호/온라인(ZOOM)-오프라인 동시진행
- 일정 사회: 차유정(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식순	시간	주제
개회	2:00-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사: 강선경(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li> <li>■ 개회사: 신연희((사)아시아교정포럼)</li> <li>■ 축 사: 신용해(법무부 교정본부)</li> </ul>
시상	2:30-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상식: 제2회 (사)아시아교정포럼 학술상</li> <li>■ 시 상: 이백철((사)아시아교정포럼)</li> <li>■ 수 상: 박현나(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대학교)</li> </ul>
발표 논평 I	2:40-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1. 김병배(경기대학교)</li> <li style="text-align: center;"><b>알코올 섭취와 성범죄 발생 관계에 관한 연구</b></li> </ul>
	3:10-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평1. 노일석(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과)</li> </ul>
발표 논평 II	3:20-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2. 박선영(한세대학교)·박현나(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대학교)</li> <li style="text-align: center;"><b>청소년 마약비행과 처우를 위한 제언</b></li> </ul>
	3:50-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평2. 배성희(법무부 소년보호과)</li> </ul>
휴식	4:00-4:20	휴식
발표 논평 III	4:20-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3. 최미경(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li> <li style="text-align: center;"><b>재발 이후,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 과정</b></li> </ul>
	4:50-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평3. 박소연(경기대학교)</li> </ul>
발표 논평 IV	5:00-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4. 김광현(서울대학교)</li> <li style="text-align: center;"><b>아동청소년의 음주와 스트레스의 관계</b></li> </ul>
	5:30-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평4. 양혜정(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li> </ul>
폐회	5:40-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토론 및 폐회식</li> </ul>

# 목 차



## ■ 개회

2023년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회사	.....	5
---------------------	-------	---

2023년 춘계 공동학술대회 축사	.....	6
--------------------	-------	---

## ■ 발표1 알코올 섭취와 성범죄 발생 관계에 관한 연구

김병배 (경기대학교)	.....	8
-------------	-------	---

[논평1] 노일석(법무부 범죄예방 데이터과)	.....	28
--------------------------	-------	----

## ■ 발표2 청소년 마약비행 대응을 위한 제언

박선영(한세대학교)·박현나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32
--	-------	----

[논평2] 배성희(법무부 소년 보호과)	.....	55
-----------------------	-------	----

## ■ 발표3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 과정 경험연구: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최미경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57
---------------------	-------	----

[논평3] 박소연 (경기대학교)	.....	82
-------------------	-------	----

## ■ 발표4 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요인과 음주의 관계: 일상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광현(서울대학교)·강선경(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83
-------------------------------	-------	----

[논평4] 양혜정(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97
--------------------------	-------	----

## 개회사

(사)아시아교정포럼 학회장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소장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반가운 마음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동감이 가득한 서강대학교 캠퍼스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좋은 의도와 의미있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금 번 춘계공동학술대회는 (사)아시아교정포럼과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가 두 번째로 손을 맞잡아 진행합니다. “알코올 및 마약중독과 범죄자 처우” 라는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중독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중독범죄자 처우에 관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중독범죄는 사회적 해악의 수준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하며, 특히 물질중독의 대표적 유형인 알코올과 마약의 영향력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사)아시아교정포럼은 교정의 인문학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범죄인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는 중독자 치우에 독보적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와 실천기술이 축적된 기관입니다. 이에 두 기관이 그동안 교류하고 협력해 온 결실로 중독범죄 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중독범죄자의 처우와 재범방지는 치안과 교정, 그리고 학계와 관련 전문가 모두가 협력해서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중독자는 문제로부터 회복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성장해야만 합니다. 오늘 행사에서 이들을 돕는 길이 모색되고 중독범죄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독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원고를 준비하신 네 분 발제자님들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토론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바쁜 공무 중에도 축사로 오늘 행사와 학회 회원들을 격려해 주신 법무부 교정본부장께도 경의를 표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아시아교정포럼과 생명문화연구소 두 기관의 협력 사업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이 주는 희망과 따뜻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23.03.24.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소장 강선경· (사) 아시아교정포럼 학회장 신연희

2023년 (사)아시아교정포럼(제36회)·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춘계공동학술대회



## 祝 辭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용해입니다.

먼저, 아시아교정포럼과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이백철 이사장님과 아시아 교정포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강선경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학술대회 참가자 여러분!

최근, 중독범죄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알코올 및 마약 중독과 범죄자 처우”라는 주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독범죄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정본부는 마약류·알코올 중독사범에 대해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단계별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독심리사 등 마약류사범 재활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중독사범 치료를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중독사범 치료공동체를 도입·운영하여 중독치료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인 마약재활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고견들은 앞으로 교정정책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4.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용해

알코올 섭취와 성범죄 발생  
관계에 관한 연구

김병배(경기대학교)



# 알콜섭취와 성범죄 발생 관계에 관한 연구: 알콜섭취가 성범죄자 하위유형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병배(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전공)

## I. 서론

사회저변에는 성범죄자의 범죄행동에 알콜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Nicholals, 2012). 실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강간범의 약 20~50% 정도가 범행당시에 알콜을 섭취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Coid, 1986; Johnson, Gibson, & Linden, 1978), 성범죄자들도 본인들의 범죄원인을 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알콜은 다양한 심리-생리적 기제를 통해 인간행동의 비합리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으며 (Giancola, 2002; Steel & Joseph, 1990), 실제 알콜사용과 관련된 몇몇 실험연구는 알콜섭취가 행위자의 폭력성과 성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Davis et al., 2016; Gross et al.,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성범죄 문헌들이 알콜섭취를 성범죄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Hanson & Bussiere, 1998; Hanson & Morton-Bourgon, 2004).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요인과 관련된 문헌을 아무리 관대하게 해석하더라도, 알콜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범죄 연구자들의 평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Hanson & Harris, 2001; Marshall & Barbree, 1990). 이처럼 성범죄 발생에 알콜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학계의 입장, 학제간 입장에는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연구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존재하는 연구들도 비범죄자들, 주로 학생을 상대로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연구이거나 (George et al., 2000), 알콜과 성범죄자의 재범행동간 관계를 부분적으로 검증한 연구만이 존재한다 (김지선/정슬기, 2015; Felson & Staff, 2005).

알콜사용과 성범죄 발생간 관계를 검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성범죄자의 다양성에 있다. 다른 어느 범죄보다도 성범죄자들은 그 동기와 행위태양, 범죄결과의 심각성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 범죄자 유형론

(offender typology) 관련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김병배, 2022; 김지선 외, 2009; 서종한/김경일, 2011; Groth et al., 1977; Knight & Prentky, 1990). 따라서 이들 다양한 성범죄자 유형별로 알콜과 성범죄 발생간의 관계를 탐색하지 않는다면 알콜과 성범죄 발생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한 선행연구는 성범죄 당시에 알콜을 사용한 집단과 사용하지 않은 집단간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았다는 연구결과를 내어 놓고 있다 (Zawacki et al., 2003).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크라넨과 에멜캠프(Kraanen & Emmelkamp, 2017)가 제안한 성범죄자 유형별 알콜의 영향에 관한 분석을 주요 분석과제로 삼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의 하위유형을 도출하고, 알콜섭취 여부가 이들 하위유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검토한다. 더 나아가 알콜섭취 여부가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성범죄자 하위유형이 도출된다면, 이들 집단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토록 하겠다. 사회일반의 인식처럼 성범죄 발생에 알콜이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성범죄자 하위유형 중에 알콜사용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 유형이 도출될 것이다. 반면에 성범죄자 관련 문헌이 지적하듯이 성범죄 발생에 알콜이 핵심적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각 집단간 분류에 있어 알콜사용이 갖는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866명의 성범죄자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알콜의 폭력 유발기전

알콜은 전통적으로 폭력범죄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왔다 (Felson & Staff, 2010). 실제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약 50%가 범죄당시 음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거나 (Abbey et al., 2004), 살인범죄자 약 37%가 알콜을 섭취했다는 보고가 있다 (Kuhns et al., 2014). 과연 알콜은 범죄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알콜이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기전에 관한 선행연구는 알콜의 효과를 심리적 효과와 생리적 효과로 나누어 설명한다. 심리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알콜기대이론 (alcohol expectancies theory)이 대표적이다. 이 이론은 알콜섭취자가 가지고 있는 알콜의 기대효과에 따라 행위자가 행동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알콜섭취가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만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알콜이 성 관

런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극단적 형태 중의 하나가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Giancola, 2002). 실제로 한 실험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 중 본인이 비알콜 음료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콜 음료를 섭취했다고 인식한 학생들은 성행위와 관련된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더 높은 성적 각성을 보고했다 (George & Marlatt, 1986; George et al., 2000). 성범죄 발생과 관련하여 알콜기대이론은 사회내에 존재하는 성역할(gender roles)에 관한 내용과도 관계를 갖는다. 술을 마시는 여성은 성적으로 좀 더 개방되어 있고, 함께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성적 허용의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은 알콜과 관련된 특정한 상황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Man & Farmer, 2013).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범죄자들이 종종 술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구실거리로 삼는다는 사실도 알콜기대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Scully, 1991).

알콜의 생리적 효과는 알콜섭취가 행위자의 고차원적 인지기능, 즉 개념화, 계획성, 문제해결, 복잡한 자극의 해석 등을 어렵게 함으로써, 성범죄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알콜 근시안 이론(alcohol myopia theory)은 알콜섭취가 범죄자의 인지기능을 저해함으로써, 가장 두드러진 현재의 자극에만 몰두하고, 통상의 경우 성범죄를 예방 할 수 있었던 요인들, 예를 들어 도덕성, 미래 결과에 대한 걱정 등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Steel & Joseph, 1990).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대학생들의 알콜섭취의 양이 증가할수록 행위자의 공격성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했다 (Abbey et al., 200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중 알콜을 섭취하지 않은 집단(non-drinkers)과 알콜을 가볍게 섭취한 집단(light drinkers), 많은 알콜을 섭취한 집단(heavy drinkers)간,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차이와 성폭행 방법 등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많은 알콜을 섭취한 집단의 성범죄자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피해자의 의사를 좀 더 성범죄 허용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좀 더 많은 물리력을 사용하고,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Parkhill et al., 2009).

종합하여 볼 때, 알콜이 폭력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리적, 생리적 효과는 모두 알콜이 범죄발생에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다만, 알콜이 수행하는 구체적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알콜섭취가 폭력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특히 이러한 영향력이 직접적인 인과적 효과를 가진다고 견해 (Felson & Staff, 2010)와 알콜은 그 자체로 범죄를 직접 유발한다기 보다는 이미 폭력의 소질 또는 위험요인을 갖는 사람들의 성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Abbey, 2011; Abbey et al., 2022; Caudy et al., 2011).

## 2. 성범죄 재범위험요인과 알콜사용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도 범행당시에 음주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비율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개별연구간 편차가 존재하지만, 작게는 연구 샘플의 약 3%에서 높게는 80%까지의 알콜사용률이 보고되고 있으며, 평균 약 45%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Kraanen & Emmelkamp, 2017). 로이젠(Roizen, 1997)은 관련연구들을 종합하여, 성범죄자들의 약 60%가 성범죄 당시에 알콜을 섭취하였지만, 기타 강력범죄자들의 경우 이 비율은 약 37%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하여, 성범죄 발생과 알콜섭취간의 높은 관계성을 보고하고 있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관한 리스트에는 알콜사용이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경험적 지지를 받고 있는 성범죄의 안정적 위험요인(stable risk factor)으로는 일탈적 성적 취향(deviant sexuality), 성범죄에 호의적 태도(attitudes tolerant of sex offending), 자기 통제의 부족(self-regulation issue), 반사회적 성격(antisocial orientation) 등이 있다 (Hanson & Bussiere, 1998; Hanson & Morton-Bourgon, 2004).<sup>2)</sup> 이들 안정적 재범위험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부분의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들은 알콜사용 관련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TATIC-99, 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KSORAS 모두 알콜사용에 관한 문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MnSOST-R, SVR-20에는 물질남용에 관한 문항이 한 문항씩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대체로 성범죄자의 알콜/약물문제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안정적 요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성범죄자의 급성 위험요인(acute risk factor)에 일부 포함시키는 연구들이 있다. 단, 급성위험요인은 안정적 위험요인과는 달리 성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한다기 보다는 재범 발생이 언제 발생할지를 더 잘 설명한다는 개념적 설명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헨슨과 해리스(Hanson & Harris, 2001)는 최초의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SONAR(Sex Offender Needs Assessment Rating)에 4개의 급성위험요인, 즉 물질남용(substance abuse), 부정적 정서(negative emotion), 분노(anger)/적대감(hostility), 피해자에의 접근성(victim access)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SONAR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된 후속 ACUTE-2007에는 피해

---

1) 펠손과 동료들 (Felson et al., 2007)은 이 보고에 대해 대부분의 성폭력범죄자가 남성이고, 그 피해자는 여성임에 비해, 많은 폭력범죄의 경우 이러한 성적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요인 중 전통적으로 주장되어온 사회성 기술 및 공감능력 부족 등은 경험적 연구 결과 일관되게 경험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로 뽑히고 있다 (Mann, Hanson, & Thorton, 2010).

자 접근성, 분노, 성적 집착, 지도감독의 거부만을 관련 문항으로 포섭하여, 물질 남용의 급성위험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Hanson, Harris, Scott, & Helmus, 2007). 성범죄자 치료의 대가인 마샬과 바브리 (Marshall & Barbree, 1990)도 성범죄를 설명하는 통합모형에서 알콜 등의 역할은 주요한 성범죄의 원인인 성범죄자의 취약성(vulnerability) 요인이 아니라, 이들 취약성 요인이 상황적 요인과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종합하여 볼 때, 기존의 성범죄자 위험요인 관련 문헌은 알콜사용을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일부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들이 소수의 문항을 할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역시도 그 이론적 위치는 매우 주변적이다.

### 3. 성범죄자 유형론

성범죄자는 범죄학 연구분야 중에 가장 유형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분야이다. 성범죄자 유형론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 그로쓰와 동료들의 연구(Groth, Burgess & Holstrom, 1977)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성폭력흉악범법(SVP LAW) 등과 같은 고위험 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맥락하에서 수행되어 왔다.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자 유형론 연구는 나이트와 프랭키의 연구(Knight & Prentky, 1997)로서 이들은 성범죄자를 크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rapists)과 아동을 상대로 한 아동 성추행범(child molester)으로 대별하였다. 성인상대 강간범의 경우에는 세부유형으로 기회주의적, 가학적, 비가학적, 보복적, 분노적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아동 성추행범의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성적 고착(fixation),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y)을 한 축(Axis I)으로 하는 4가지 유형. 성범죄자가 아동과 가지는 접촉의 강도, 목적, 상해발생을 또 다른 한 축(Axis II)으로 하는 6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성범죄자 유형론에 관한 연구가 존재한다. 김지선과 동료들(2009)은 약 400여명의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를 애착형, 폭력형, 도구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애착형(70.5%)이었는데, 이들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이에게 신뢰를 얻어 성행위에 동참하게 하는 유형으로, 키스나 성기 접촉 등 성교 이외의 성적 접촉을 주로 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서종한과 김경일(2011)은 경찰청 과학분석시스템에 입력된 111명의 성범죄 피의자면담자료로부터 16개의 행동특성을 도출한 후 군집분석기법을 통해 6가지 하위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들은 연쇄성 성적 특이 강도강간형, 비연쇄성 침입 강도강간형, 연쇄성 야외현장 강간형, 비연쇄성 침입강간형, 연쇄성 야외현장 강도강간형, 비연쇄성 야외현장 아

동청소년 강간형 있다. 장은영과 이수정(2017)은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는 일반 보호관찰 성범죄자 86명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문항, 심리평가 문항 등 총 21개의 변인을 포함하여 MDS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성범죄자는 크게 ‘대인관계 문제집단’, ‘반사회성 집단’, ‘정신질환 집단’, ‘성에 대한 집착집단’ 등 4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종합하여 볼 때, 국내외의 성범죄자 하위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략 아동피해자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유형, 성적 집착을 보이는 유형, 폭력성이 두드러지는 유형 등의 하위유형을 보고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 4. 본 연구

본 연구는 크라넨과 에멜캄프(Kraanen & Emmelkamp, 2017)이 제안한 성범죄자 유형별 알콜섭취의 영향력에 관한 분석을 핵심 연구문제로 삼는다. 본 연구가 가진 문제의식을 구체적 연구문제로 전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의 하위유형을 도출할 것이다. 전술된 바와 같이 성범죄자를 동일한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 집단내에서 알콜사용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알콜섭취 여부가 이들 하위유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알콜섭취 여부가 성범죄 발생에 주요한 위험요인이라고 한다면 성범죄자 하위유형 중 특정집단과 보다 높이 연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알콜섭취 여부가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성범죄자 하위유형이 도출된다면, 이들 집단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토록 하겠다. 특히 마지막 연구문제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자 하위집단이 향후 재범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를 추가 분석토록 하겠다.

### Ⅲ. 연구방법론

#### 1. 데이터 및 측정

본 연구는 국내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연구에 사용된 샘플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명령이 개시된 성폭력사범 866명이다. 이들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을 당시 알콜섭취 상태하에서 본 건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는 293명으로 40.4%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5세 (표준편차 11세), 직업은 무직이 56%, 학력은 초졸이하 14.5%, 중졸이하 17.9%, 고졸이하 49.1%, 대재이상은 18.3%에 해당했다. 결혼은 미혼이 58%, 이혼이 30%로 기혼에 비해 다수를 차지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본건 성범죄로 부과 받은 징역형 선고기간은 평균 67개월 (표준편차 40개월), 전자감독명령 선고기간은 평균 101개월 (표준편차 51개월)에 해당한다. 이들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재범상황이 추적되었다.

[표 : 1] 연구샘플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변수	Obs	Freq	%	Mean	SD	Min	Max
연령	866			45.242	11.159	21	83
알콜							
섭취		293	40.4				
비섭취		432	59.6				
직업							
무직		486	56.4				
있음		375	43.5				
학력							
초졸이하		125	14.5				
중졸이하		154	17.9				
고졸이하		422	49.1				
대재이상		157	18.3				
결혼							
미혼		479	58.3				
이혼		250	30.4				
기혼 등		92	11.2				
징역형 선고기간	785			67.51	40.24	4	300
전자감독 선고기간	866			101.32	51.70	24.3	273.7

성범죄자 하위유형 도출을 위한 LCA 분석을 위해 투입된 지표변인은 다음과 같다. 투입된 지표변인은 크게 성범죄자의 범죄행위 중심 문항과 범죄전력 문항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범죄행위 중심의 문항들은 모두 ‘예-아니오’의 더미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사용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미성년=1),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람인지(낯선이=1), 피해자가 음주상태에 있었는지(피해자음주=1), 범죄가 야간에 발생하였는지(야간=1), 성범죄 당시 주거침입이 있었는지(주거침입=1), 흉기가 사용되었는지(흉기사용=1), 범죄의 형태가 성기 삽입범죄인지(성기삽입=1), 범죄에 상해발생이 있었는지(상해발생=1), 본 건 성범죄 외에 다른 범죄가 저질러졌는지(다른범죄=1). 다음으로 투입된 범죄전력 중심변인들은 모두 서열척도(ordinal scale)로 측정된 다음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 성범죄전력(0~5점), 폭력

범죄 전력(0~2점).

[표 : 2] 기술통계 분석결과 (지표변인)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미성년 피해자	866	.495	.5	0	1
낮선 피해자	866	.497	.5	0	1
음주 피해자	866	.104	.305	0	1
야간발생	700	.614	.487	0	1
주거침입	723	.246	.431	0	1
흥기사용	724	.228	.42	0	1
성기삽입	724	.688	.464	0	1
상해발생	722	.266	.442	0	1
여죄발생	724	.202	.402	0	1
성범죄전과	866	1.585	1.249	0	5
폭력전과	866	1.03	.823	0	2

## 2. 분석방법 및 계획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범죄자의 잠재 계층을 도출한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 성범죄 사건에서 사용된 범죄수법과 성범죄자의 범죄전력을 지표로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적용한다. LCA는 유사한 특성을 지닌 개인들을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주고, 집단분류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여, 객관적인 하위집단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통계분석 방법이다. LCA는 관찰변수간 동질성에 근거한 통상의 변수 중심 분석이 아니라 모집단이 동질하지 않은 여러 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을 갖는 유한혼합모형의 하나로 관찰개체 중심 분석(person-centered approach)으로 분류된다. 개별 분석 대상은 하나의 잠재계층에만 속하고, 잠재계층에 속한 개인들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가진다 (Hagenarrs & McCutcheon,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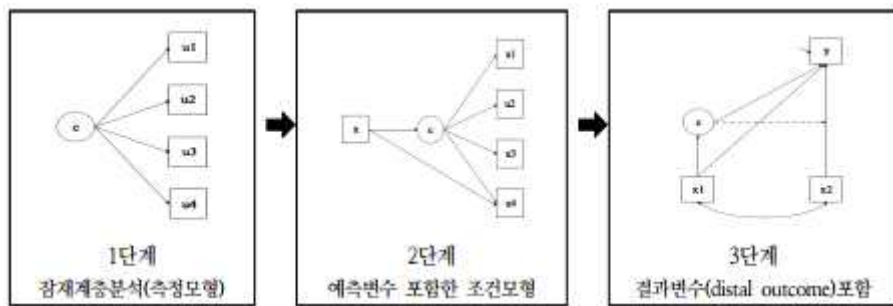
두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수행 당시 알콜섭취 여부라는 독립변수가 각 잠재계층을 분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이 가설을 좀 더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연령, 결혼상태, 최초입건연령, 이전시설수용기간 등 주요 변수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도 알콜사용여부가 하위집단 분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이 분석에서는 성범죄자의 하위유형이 최소 3집단이



상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이 활용된다.

세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도출된 성범죄자의 하위유형이 향후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특히 이 분석에서는 알콜섭취와 관련된 하위유형이 다른 유형의 성범죄자 하위집단에 비해 향후 재범을 더 하는지 혹은 덜 하는지를 검증하도록 한다.

[그림-1] 연구문제별 잠재계층 분석과정 도식도



#### IV. 분석결과

##### 1. 성범죄자 잠재계층 수 판정

주요한 성범죄 수법변수 및 범죄전력 등을 기준으로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사범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공변인이 없는 무조건모형을 시작으로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칠 변인들을 추가하여 하위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개별모형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한 집단 내에 몇 개의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C, BIC와 같은 정보 준거를 활용하였다. 투입된 지표로는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미성년=1),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람인지(낯선이=1), 피해자가 음주상태에 있었는지(피해자음주=1), 범죄가 야간에 발생하였는지(야간=1), 주거침입이 있었는지(주거침입=1), 흥기가 사용되었는지(흥기사용=1), 범죄의 형태가 성기 삽입범죄인지(성기삽입=1), 범죄에 상해발생이 있었는지(상해발생=1), 본 건 성범죄와 외에 다른 범죄가 저질러졌는지(다른범죄=1) 외에 성범죄전력(0~5점), 폭력범죄 전력(0~2점)이 투입되었다.

<표-3>에 제시된 분석결과, 잠재계층수가 4개인 경우와 5개인 경우의 모델의 AIC 값과 BIC 값이 유사하였으나, 모델핏을 결정하는 통계치 중 가장 신뢰로운 것

으로 평가받는 BIC 값이 유의미하게 작고, 모델의 간결성 측면에서 우수한 잠재계층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적의 모델로 선택하였다.

[표 : 3] 잠재계층 분류 기준

잠재 계층 수	정보준거			
	ll(모델)	df	AIC	BIC
1개	-6393.663	11	12809.33	12861.73
2개	-6045.459	23	12136.92	12246.49
3개	-5951.658	35	11973.32	12140.05
4개	-5855.047	47	11804.09	12028.00
5개	-5841.103	59	11800.21	12081.27

## 2. 집단별 잠재계층의 형태분석

계층 수 4개를 최적모형으로 분류된 성범죄자의 잠재계층 형태는 <표-4> 와 같다. 분석 대상 성범죄자 중 31.2%가 첫 번째 집단에, 20.6%가 두 번째 집단에, 20.2%가 세 번째 집단에, 27.8%가 네 번째 집단에 속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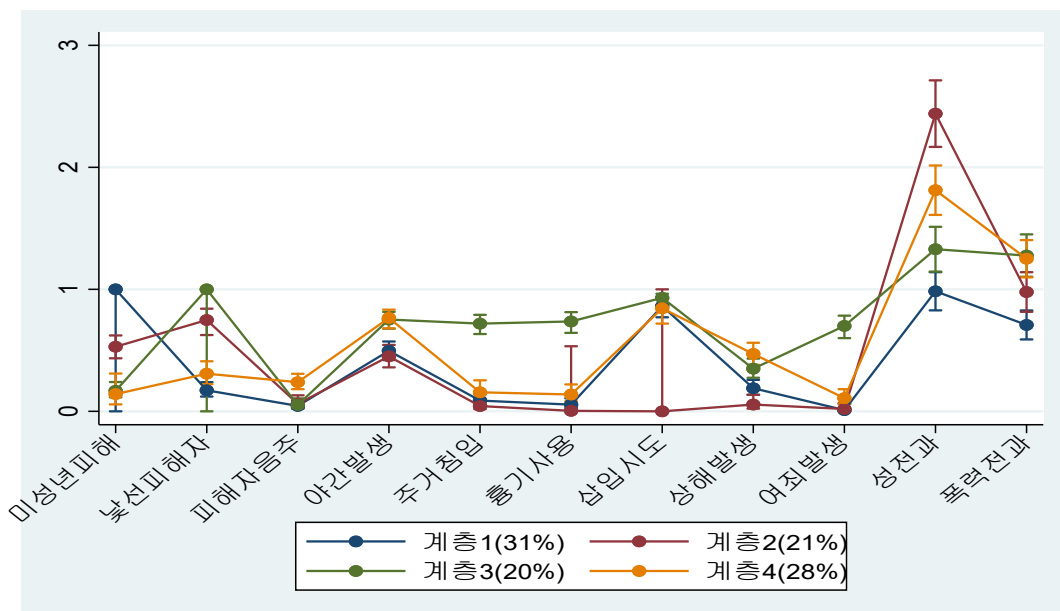
잠재계층의 분석에 사용된 지표변수의 분포(<표-4>, <그림-2>)를 통해 각 집단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평상시 알고 있는 미성년피해자를 상대로 한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집단으로, 대부분의 범죄가 강간의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성범죄전과와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미성년 강간범’ 이라고 명명하였고, 실제 이 유형에 속하는 범죄자들은 근친, 장애인 아동을 상대로 한 지속적 강간범들이 많았다. 제2유형 집단은 피해자에 대해 흥기를 사용하지 않는 추행의 형태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이 집단은 가장 높은 성범죄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유형은 ‘상습추행범’ 이라고 명명하였다. 실제 이 집단에 속한 성범죄자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를 범하거나, 아동 등을 성추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3 유형 집단은 야간에 흥기를 사용한 채 낮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등을 저지르는 특성을 갖는다. 주거침입절도, 강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성범죄가 동반되는 형태다. 이 유형은 그러한 의미에서 ‘침입형 비면식 강간범’ 이라고 명명했다. 네 번째 유형은 야간에 성인, 음주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범죄를 저지른 유형이다. 이 집단은 특히 범행중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비교적 높은 성범죄, 폭력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집단은 이러한 특

성을 반영하여 ‘야간성인 강간상해범’ 이라고 명명했다.

[표 : 4] LCA 분석결과 (계층 점유율과 측정모형 결과)

	성범죄자 하위유형			
	계층1 (미성년강간범)	계층2 (상습추행범)	계층3 (침입형비면식 강간범)	계층4 (야간성인 강간상해범)
계층 점유율	31.2%	20.6%	20.2%	27.8%
지표변수 확률				
미성년피해자	.99	.52	.16	.14
낮선피해자	.17	.74	.99	.30
음주피해자	.04	.06	.05	.20
야간발생	.49	.45	.75	.76
주거침입	.08	.04	.71	.15
흉기사용	.05	.00	.73	.13
성기삽입	.86	.00	.93	.84
상해발생	.18	.05	.34	.47
여죄발생	.01	.01	.70	.10
성전과(평균)	.98	2.44	1.32	1.81
폭력전과(평균)	.70	.97	1.27	1.25

[그림 : 2] 성범죄자 잠재계층의 형태



### 3. 범행시 알콜섭취여부와 잠재계층간 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문제인 본 범죄 당시 알콜섭취여부가 잠재계층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연령, 결혼상태, 최초입건연령, 이전 시설수용기간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본 범죄 당시의 알콜섭취여부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표-5>에 제시된 분석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성범죄자가 범죄당시에 알콜을 사용했을수록 잠재계층-4 (야간 성인 강간상해범)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알콜사용여부는 계층-1, 계층-2, 계층-3과의 비교에서 모두 계층-4(야간 성인 강간상해범)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알콜사용여부는 계층-1과는 약 3.6배, 계층-2와는 약 2.86배, 계층-3과는 약 2.95배 차이로 계층-4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두 번째 주목할만한 연구결과는 알콜사용여부는 다른 유형의 성범죄자 유형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범행당시의 알콜사용여부는 계층-1, 계층-2, 계층-3 상호간 집단변별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표 : 5] 알콜사용여부와 잠재계층 분류의 관련성 (멀티노미얼 로짓분석 ; risk ratio)

변수	성범죄자 하위유형					
	계층1 v. 계층2	계층1 v. 계층3	계층1 v. 계층4	계층2 v. 계층3	계층2 v. 계층4	계층3 v. 계층4
알콜사용	1.27	1.21	3.60***	0.96	2.86***	2.95***
연령	0.96**	0.96**	0.96**	0.99	0.99	0.99
미혼	1.53	2.07*	3.23**	1.35	2.10	1.55*
최초입건연령	0.78	1.25	0.89	1.59**	1.14	0.71
시설수용기간	1.77***	3.90***	2.90***	2.19***	1.64**	0.74

\* p<0.05; \*\* p<0.01; \*\*\* p<0.001

### 4. 성범죄자 하위집단이 향후 재범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본 연구의 마지막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성범죄자의 잠재계층별로 재범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좀 더 타당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총점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범죄자 잠재계층이 재범률에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성범죄자 잠재계층이 재범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자 모델-1에는 감독기간 중 모든 재범행동을 종속변수로, 모델-2에는 성폭력 동종 재범여부만을 종속변수로, 모델-3에는 성범죄를 제

외한 폭력범죄 재범을 종속변수로, 모델-4에는 이들 범죄들을 제외한 기타재범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표-6>에 제시된 분석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알콜사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유형-4의 성범죄자들은 모든 유형의 재범행동에 있어서 유형-1의 성범죄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재범행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4 유형의 성범죄자들은 전체 재범에 있어서는 잠재계층1 유형에 비해 약 3.8배, 성폭력재범에 있어서는 3.9배, 폭력재범에 있어서는 3.3배, 기타 재범에 있어서는 약 2.3배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 그 외의 의미있는 분석결과는 잠재계층2 유형의 성범죄자들에 있어서 특히 성폭력재범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잠재계층 2유형의 성범죄자는 제1유형의 성범죄자에 비해 약 2.8배정도 성폭력 재범을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잠재계층 4유형(성인 여성을 상대로 야간에 강간범죄를 주로 저지르고 상해를 발생시키는 유형)과 잠재계층 2유형(성범죄 전과가 가장 높고 상승적으로 추행만을 일삼는 유형)만이 향후 재범행동, 특히 성범죄 재범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표 : 6] 성범죄자 하위집단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로지분석, odds ratio)

변수	전체재범 (model-1)	성폭력재범 (model-2)	폭력재범 (model-3)	기타재범 (model-4)
잠재계층 1 (reference)				
잠재계층 2	2.107**	2.888**	1.283	1.017
잠재계층 3	0.955	1.031	1.469	0.876
잠재계층 4	3.836***	3.992***	3.342**	2.321*
KSORAS 총점	1.155***	1.184***	1.130**	1.023

\* p<0.05; \*\* p<0.01; \*\*\* p<0.001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알콜섭취와 성범죄 발생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성범죄자 유형론에 주목했다. 과연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성폭력사범의 하위유형이 존재하는지, 하위유형이 존재한다면 알콜사용여부가 개별 하위유형을 의미있게 변별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위집단별로 재범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자를 상대로한 잠재계층 분석(LCA) 결과 4가지 잠재계층이 도출되었다. 이들은 각각의 특성을 기준으로 제1유형(미성년강간범, 31.2%), 제2유형(상습추행범, 20.6%), 제3유형(비면식 침입형강간범, 20.2%), 제4유형(성인상대야간 강간범, 27.8%)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관심사인 ‘범행당시 알콜사용여부’ 변수는 각 하위유형간 분류에 있어서 오직 제4유형의 성범죄자들만을 적절히 분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상호간에는 알콜사용여부가 이들 하위집단을 변별하는데에는 유용하지 못했다. 4유형의 성범죄자 집단만이 알콜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마지막 연구문제였던 성범죄자 하위유형이 향후의 재범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4유형의 성범죄자는 제1유형의 성범죄자에 비해 모든 유형의 재범행동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재범을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제2유형의 성범죄자 역시 성범죄 재범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다음은 이러한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 연구의 주요한 관심은 알콜사용여부가 성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성범죄자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주목하여 성범죄자를 하위유형으로 구분하고, 하위유형 구분에 알콜사용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제4유형의 성범죄자(성인상대야간 강간범)과 알콜사용간 깊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4유형에 속한 모든 성범죄자가 알콜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추가분석결과, 각 하위집단별로 알콜을 사용한 성범죄자의 점유율은 4유형이 63.8%로 가장 높았고, 3유형이 37.7%, 2유형이 37.1%, 1유형이 30.7%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알콜과 성범죄 발생간의 관계에 있어서 알콜의 영향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형태는 다른 변수와의 관계와 조건적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특히 알콜을 사용한 성범죄자들 중 특정한 특징을 공유하는 성범죄자 유형만이 향후 재범행동을 유의미하게 더 저질렀다는 점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본문 분석결과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성범죄자의 잠재계층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본건 범죄에 있어서 알콜사용여부가 향후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알콜사용여부는 향후 재범을 예측하지 못했다. 다시한번 단순한 알콜사용여부라는 특징보다는 알콜을 사용하는 범죄자 유형에 따라 알콜이 향후 재범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등적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가 발견한 중요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두 번째 이론적 함의를 논의하기 위해, 제2유형과 제4유형

성범죄자간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집단은 모두 향후 성범죄 재범행동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던 집단이다. 다만, 이들 중 4집단에는 알콜사용여부가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하였음에 비해, 2집단은 그렇지 못했다. 사실 제2유형의 성범죄자 하위유형은 전통적으로 성범죄자 문헌이 보고하고 있는 성적 일탈성(sexual deviance)이 높은 상습 성범죄자 집단과 유사하다. 전술된 국내 선행연구 중 장은영과 이수정(2017)이 발견한 ‘성에 대한 집착집단’, 김지선 외(2009)이 발견한 ‘애착형 성범죄자 집단’ 과 유사하다. 이 집단은 성적 일탈성의 특징으로 인해 성범죄자 중 가장 높은 재범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왔다 (Knight, 1999; Ward & Siegert, 2002).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제4유형 집단의 발견이다. 제4유형 집단은 제2유형 집단에 비해서 모든 범주의 재범행동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저질렀고, 특히 제2유형에 비해 성범죄 동종 재범도 더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로 저질렀다. 이 유형에 속한 성범죄자들이 저지른 성범죄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아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경우, 채팅을 통해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술자리 이후에 강간을 시도하는 경우, 주점 등에서 늦은 밤 여주인 등을 강간하려고 하는 경우 등으로, 전술된 알콜의 심리적, 생리적 영향력에 관한 이론적 설명과 부합하는 상황적 단초를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주점 여주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는 “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술과는 여자는 성적으로 쉽다” 던지, “이들 여성들의 긍정적 제스처를 성적 관심의 메시지로 오해” 하는 알콜근시안적 성향과 성범죄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제4유형의 성범죄자 집단들이 가장 높은 빈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도 알콜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Abbey at al., 2004). 종합해보면 알콜 사용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제4유형의 성범죄자들은 모든 유형의 재범을 가장 높은 빈도로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유형이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정책적 시사점도 크다. 우선적으로는 제4유형 집단을 성범죄자 평가의 단계에서 별도의 예측지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술된 결과에서 보였던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범죄자 하위유형은 현행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KSORAS 총점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향후 재범을 강력히 예측해주고 있다. 따라서 추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범죄자 하위유형에 관한 문항이 별도로 포섭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재발방지(relapse prevention) 관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맥락을 알콜사용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이를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치료프로그램 또는 보호관찰관의 처우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의 분석에서 알 수 있었듯이, 본 범죄에서 알콜을 사용한

모든 성범죄자가 이러한 재발방지 계획 수립의 대상일 필요는 없다. 다만, 제4유형의 집단에 속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주요한 성범죄자 재범 위험요인과 별도로 해당 위험요인들이 발현하는 상황을 알콜사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들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계획 수립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성범죄자들이 성범죄 당시에 술을 마셨는지에 관한 정보만을 기준으로 하위집단 분류를 예측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알콜을 얼마나 섭취했는지에, 알콜과 관련된 이력 정보도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Abbey et al., 2003). 후속 연구는 알콜사용 관련 변수를 좀 더 심층적으로 측정한 변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고위험 성범죄자라는 사실은 연구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성범죄자 집단에 일반화함에 있어서는 한계점이기도 한다. 후속 연구는 좀 더 다양한 샘플을 통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발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알콜사용과 성범죄자 관리, 평가, 치료의 영역이 조금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김병배. (2022). 성범죄자 유형론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의 예측타당도 검증. *교정연구*, 32(1), 185-211.
- 김지선, 박지선, 최수형, (2009).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유형분류와 프로파일링」, 보건복지부
- 김지선, 정슬기. (2015).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 및 음주 관련 요인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3(3), 35-57.
- 서종한, 김경일. (2011). 성범죄자 군집유형분석과 프로파일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55-172.
- 장은영, 이수정. (2017). 성범죄자 하위유형 분류 및 차별화된 처우방안 제안. *한국범죄학*, 11(1), 79-111.
- Abbey, A. (2011). Alcohol's role in sexual violence perpetration: Theoretical explanations, existing evidence and future directions. *Drug and alcohol review*, 30(5), 481-489.
- Abbey, A., Clinton-Sherrod, A. M., McAuslan, P., Zawacki, T., & Buck, P. O.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ntity of alcohol consumed and the severity of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college 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7), 813-833.
- Abbey, A., McDaniel, M. C., & Jilani, Z. (2022). Alcohol and men's sexual aggression: Review of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prevention. *Engaging Boys and Men in Sexual Assault Prevention*, 183-210.
- Abbey, A., Zawacki, T., Buck, P. O., Clinton, A. M., & McAuslan, P. (2004). Sexual assault and alcohol consumption: What do we know about their relationship and what types of research are still needed?.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3), 271-303.
- Caudy, M. S., Folk, J. B., Stuewig, J. B., Wooditch, A., Martinez, A., Maass, S., & Taxman, F. S. (2015). Does substance misuse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thinking and recidivism?.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1), 12-19.
- Davis, A., Kaighobadi, F., Stephenson, R., Rael, C., & Sandfort, T. (2016). Associations between alcohol us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LGBT health*, 3(6), 400-406.
- Emmelkamp, Paul M.G., & Fleur L. Kraanen, (2017). 'Alcohol and drugs in relation to sexual offending', in Teela Sanders (ed.), *The Oxford Handbook of Sex Offences and Sex Offenders*, Oxford Handbooks

- Felson, R. B., Burchfield, K. B., & Teasdale, B. (2007). The impact of alcohol on different types of violent inciden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8), 1057-1068.
- Felson, R. B., & Staff, J. (2010). The effects of alcohol intoxication on violent versus other offend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12), 1343-1360.
- George, W. H., & Marlatt, G. A. (1986). The effects of alcohol and anger on interest in violence, erotica, and devia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2), 150.
- George, W. H., & Stoner, S. A. (2000). Understanding acute alcohol effects on sexual behavior.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11(1), 92-124.
- George, W. H., Stoner, S. A., Norris, J., Lopez, P. A., & Lehman, G. L. (2000). Alcohol expectancies and sexuality: a self-fulfilling prophecy analysis of dyadic perceptions and behavior.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1), 168-176.
- Giancola, P. R. (2002). Alcohol-related aggression during the college years: theories, risk factor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supplement, (14), 129-139.
- Groth, A. N., & Burgess, A. W. Holmstrom. L.(1977). Rape, power, anger and sexu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4(11), 1239-1243.
- Hagenaars, J. A., & McCutcheon, A. L. (Eds.). (2002).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son, R. K., & Bussiere, M. T. (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348.
- Hanson, R. K., & Harris, A. J. (2001). A structured approach to evaluating change among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3, 105-122.
- Hanson, R. K., Harris, A. J., Scott, T. L., & Helmus, L. (2007). *Assessing the risk of sexual offenders on community supervision: The Dynamic Supervision Project (Vol. 5, No. 6)*. Ottawa, Ontario: Public Safety Canada.
- Hanson, R. K., & Morton-Bourgon, K. (2004). *Predictors of sexual recidivism: An updated meta-analysis 2004-02*.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Canada.
- Johnson, S. D., Gibson, L., & Linden, R. (1978). Alcohol and rape in Winnipeg, 1966-1975.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9(11), 1887-1894.
- Knight, R. A. (1999). "Validation of a typology for rapis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3), 303-330.

- Knight, R. A., & Prentky, R. A. (1990). Classifying sexual offenders: The development and corroboration of taxonomic models. William Lamont Marshall, DR Laws und Howard E. Barbaree (Hg.):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New York: Springer (Applied clinical psychology), 23-52.
- Kraanen, F. L., & Emmelkamp, P. M. (2017). Alcohol and drugs in relation to sexual offending. The Oxford handbook of sex offences and sex offenders, 143-162.
- Kuhns, J. B., Exum, M. L., Clodfelter, T. A., & Bottia, M. C. (2014). The prevalence of alcohol-involved homicide offending: a meta-analytic review. Homicide studies, 18(3), 251-270.
- Mann, R., & Farmer, M. (2013). Treatment for alcohol-related sexual violence. Alcohol-related violence. Prevention and treatment, 227-247.
- Marshall, W. L., & Barbaree, H. E. (1990). An integrated theory of the etiology of sexual offending (pp. 257-275). Springer US.
- Nicholls, J. (2012). Everyday, everywhere: alcohol marketing and social media—current trends. Alcohol and alcoholism, 47(4), 486-493.
- Parkhill, M. R., Abbey, A., & Jacques-Tiura, A. J. (2009). How do sexual assault characteristics vary as a function of perpetrators' level of intoxication?. Addictive Behaviors, 34(3), 331-333.
- Roizen, J. (1997). Epidemiological issues in alcohol-related violence. In M. Galanter (Ed.), Recent developments on alcoholism: Vol. 13. Alcohol and violence (pp. 7-40). New York: Plenum
- Scully, D. (2013).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A study of convicted rapists. Routledge.
- Steele, C. M., & Josephs, R. A. (1990). Alcohol myopia: Its prized and dangerous effects. American psychologist, 45(8), 921.
- Steele, C. M., & Southwick, L. (1985). Alcohol and social behavior I: The mediating role of inhibitory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8-34.
- Zawacki, T., Abbey, A., Buck, P. O., McAuslan, P., & Clinton-Sherrod, A. M. (2003). Perpetrators of alcohol-involved sexual assaults: How do they differ from other sexual assault perpetrators and nonperpetrator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9(4), 366-380.
- Ward, T., & Siegert, R. J. (2002). Toward a comprehensive theory of child sexual abuse: A theory knitting perspective. Psychology, crime and law, 8(4), 319-351.

알콜섭취와 성범죄 발생 관계에 관한 연구: 알콜섭취가 성범죄자  
하위유형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노일석(법무부 범죄예방 데이터과)

□ (서언)

- 연구방법론적으로 매우 우수한 발표논문이어서 토론하거나 논평할 거리를 찾기 쉽지 않았음(충분한 샘플, 세련된 분석방법, 한계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
- 따라서, (1) 발표자가 제시한 한계점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후속 연구 진행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논점들에 집중하였고,
- (2)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정적변수에 따른 하위유형 분류의 한계점을 보완·극복하기위하여 개입·처우·치료적인 관점으로 연구 결과의 하위유형들을 연결하고 싶었음(‘결론 및 논의’에서 일부 제시되었지만.....)
- 먼저, 성범죄와 알코올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많지만, 섬세한 연구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Taxonomy의 관심영역이 아니었나? 성범죄자의 이질성 커서 특정한 유형의 feature로 나타나지 않았나? 성범죄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처우·개입·치료에 관심이 더 커서 ‘변수 중심의 분석’이 대부분이었나?)
- 따라서 ‘성범죄와 알코올 사용에 대한 기존 연구’를 더 살펴보고 싶었음

□ (이론적 배경에 대한 토론) 성범죄와 알코올 사용에 관한 기존 연구 추가

○ 성범죄 원인론과 알코올 사용에 관한 연구

- Finkelhor(1984)은 ‘전제조건(precondition) 모델’의 2번째 전제조건(overcoming internal inhibitors)에서, 알코올 사용이 아동성범죄 행동을 금지하는 (통제)능력을 약화하는 inhibitor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함
- Hall & Hirschman(1992) ‘Quadripartite 모델’의 3번째 요인(affective dyscontrol)에서, 알코올 사용이 불안·슬픔·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부적응·부적절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함(아동성범죄

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부적절한 정서적 대처(emotional coping)’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Ward & Siegert(2002)은 경로(pathways) 모델의 ‘아동성범죄자의 4가지 취약성’ 중에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부적절한 대처 전략이 아동성범죄자의 정서적 조절문제(emotional dysregulation)에 기여함을 주장

#### ○ 성범죄와 알코올 사용에 관한 기타 연구

- Keenan & Ward(2000) : 알코올 사용은 자기조절 실패와 행동통제 상실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cue에 주의하는 (평상시의) 능력에 일시적 결함을 가져오으로써 공감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Marshall et al.(1999): 대인관계능력 문제가 있고 일탈적 성적환상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알코올 사용이 금지해제 요인으로 작용할 때 성범죄를 촉발할 수 있음
- Salter(1995) : 특정한 성범죄자에 한하여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성범죄 재범위험성과 알코올 사용에 관한 연구

- SORAG에서 알코올 문제력(부모 알코올 문제, 피평가자의 10대·성인기 알코올 문제, 피평가자의 이전 범죄 및 본건 범죄시 알코올 사용)을 재범위험요인으로 보고 있음(Quinsey, Harris, Rice & Cormier, 1998)
- KSORAS-D에서 ‘AUDIT 15점 이상’을 재범위험요인으로 보고 있음
- MnSOST-R에서 ‘알코올 남용 패턴’을 재범위험요인으로 보고 있음(Hout, 1997)
- VASOR에서 ‘최근 5년간 알코올 남용’을 재범위험요인으로 보고 있음(McGrath & Hoke, 2001)

#### ○ (종합)

- 알코올 사용을 자기조절과 행동통제를 약화시키는 금지해제요인(inhibitor), 촉발요인, 일시적 요인 등의 급성요인(acute factor)으로 보는 연구가 있는 한편(Finkelhor, 1984; Keenan & Ward, 2000; Marshall et al., 1999),
- 재범위험의 안정적 요인(stable factor) 중에서 ‘정서적 조절·대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는 연구 있음(Hall & Hirschman, 1992; Ward & Siegert, 2002)
- 주목할 사항은, 대다수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서는 성범죄자의 ‘범죄시 알코올 사용 여부’가 아닌 ‘일상적인 알코올 사용 문제력’을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알코올 사용을 범죄시의 촉발요인 또는 급성요인보다 장기간의 알코올 사용이 ‘자기조절(통제)’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안정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연구방법론에 대한 토론)

- 성범죄자 이질성과 유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첫 번째 연구문제로서 ‘성범죄자의 하위유형에 따른 알코올 사용의 영향’을 연구 주제를 정한 것은 매우 적절함
- 두 번째 연구문제(‘알코올 섭취 여부와 하위유형과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알코올 섭취’를, (1) 범행 당시의 알코올 사용(촉발요인 또는 급성요인)과 (2) 안정적 요인으로서의 ‘자기조절(통제) 능력’과 관련한 ‘알코올 사용의 문제력’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하위유형 도출과 관련하여, 변수(인) 중심의 분석방법(군집분석, 의사결정나무 등)이 아닌 인간 중심의 분석방법(LCA)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 (분석결과 및 논의 대한 토론)

- 잠재 계층 수(모형의 적정성)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 계층4는 주로 성인에 대해(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일탈성은 낮고), 알코올을 의도적인 수단으로(자신의 행동을 촉발시키고,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강간의 행동으로 상해의 피해를 크게 주는 성범죄자, 강간 통념(여성 도구화,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합리화·축소·부인)
  - 계층3은 반사회적 행동의 일부로서 성범죄자를 저지르는 자(낮선 여성,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일반적인 자기조절의 문제가 있는 성범죄자
  - 계층2는 성적인 일탈성(낮선 여성 추행의 방법) 문제가 있는 자(성인 또는 미성년자) - 방법(추행)의 일관성
  - 계층1은 성적인 일탈성(알고지내는 미성년자) 문제가 있는 자 - 대상의 일관성
- 알코올 섭취(범행時)와 잠재계층간 관계
  - 특히, 알코올 사용여부가 계층1과 3.6배 차이로 계층4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
- 하위유형이 재범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 계층4는 모든 재범행동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높은 영향력(계층1과 비교하여)
- 추론되는 심리학적 특성
  - 계층4는 알코올을 도구로 사용하므로 알코올이 촉발요인으로, PCL-R 점수

에서 Facet1이 높을 수 있음

- 계층3은 일반적 자기조절을 문제가 있으므로 평상시에도 알코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가 안되는 집단. PCL-R 점수에서 Facet2가 높을 수도 있음
-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 하위유형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겠음
  - 정적요인과 더불어 동적요인 변수를 추가하여 유형 분류를 해 볼 수도 있음
  - 알코올 사용의 양태를 구분하여(범행시 사용, 알코올 남용 문제력 여부) 변수로 사용하는 분석 방법도 시도 해볼 수 있겠음
  - 하위유형에 대한 절적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음

#### □ 참고문헌

- Andrews, D. A. & Bonta, J. (1995). *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Finkelhor, D. (1984).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 Hall, G. C. N. & Hirschman, R. (1992). Sexual aggression against children: a conceptual perspective of etiolog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9, 8-23.
- Hanson, R. K. & Harris, A. J. R. (2000). Where should we intervene? Dynamic predictors of sexual offence recidivis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 6-35.
- Keenan, T. & Ward, T. (2000). A theory of mind perspective on cognitive, affective, and intimacy deficits in child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2, 49-60.
- Marshall, W. L., Anderson, D. & Fernandez, Y. (1999). *Cognitive behaviour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New York: John Wiley & Sons.
- Salter, A. C. (1995). *Transforming trauma: A guide to understanding and treating adult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Thousand Oaks, CA: Sage.
- Ward, T. & Siegert, R. J. (2002). Toward a comprehensive theory of child sexual abuse: a theory knitting perspective. *Psychology, Crime and Law*, 9, 319-351.

## 청소년 마약비행 대응을 위한 제언

박선영(한세대학교) · 박현나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대학교)



# 청소년 마약비행 대응을 위한 제언

박선영(한세대학교)

박현나(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I. 서론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비행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의 유통과 투약으로 42명의 10대들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보도를 시작으로<sup>3)</sup> 2022년, 2023년에 10대들의 마약사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익숙한 온라인으로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쉽게 마약에 접하고 있으며, 호기심, 살을 빼기 위한 식욕억제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각성제 등을 이용하고 있다.<sup>4)</sup> 또한 왕따, 가정의 문제로 인해 마약에 접하게 되어 중독에 이르는 경로들도 현장 실무자에게 포착되고 있다.<sup>5)</sup>

마약과 관련된 국가 공식통계 상에도 청소년 마약비행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년법 상의 대상이 되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마약비행자는 2020년 162명, 2021년 279명, 2022년 33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대검찰청 a, 2022). 가장 최근인 2022년에 청소년 마약비행자가 332명이지만, 마약범죄가 암수율이 높은 범죄이므로 실제로는 28.57배인 9,485명 정도의 청소년 마약비행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박성수와 백민석, 2019).

청소년들의 마약비행이 더욱 우려되는 점은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의 압력에 약하고(김소야지 외, 2000), 어린시절의 경험이 성인으로까지 상습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이무송, 2022), 경제력의 한계로 인해 마약구입 비용 마련을 위해 마약판매 및 다른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정혁과 김동욱, 2018).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약사범에 대한 처우와 치료는 대부분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보호관찰 단계나 소년원 등의 시설에서 청소년 마약

3) “학교서도 투약, 모르핀 100배,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된 10대들” 2021년 5월 20일 조선일보 보도.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1/05/20/K361YQAN5JBATMTWQNN7NQLDAQ/> (2023년 3월 2일 최종검색).

4) “청소년 마약, 마치 술, 담배처럼 쉽게 빠져드는 10대 생활마약” 2022년 12월 9일 KBS 뉴스 보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9371> (2023년 3월 1일 최종검색)

5) “마약과의 전쟁, 청소년 마약사범 늘어나는데 예방은” 2022년 10월 20일 영남일보 보도.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1020010002544> (2023년 3월 3일 최종검색)

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마약을 판매한 사범은 강력처벌을 받아야하지만 마약을 투약한 마약사범의 경우 그 중독성으로 인해 처벌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전문 의료시설에서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권준수 외, 2019; Belenko et al., 2022). 대검찰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6.6%로 상당히 높았으며, 출소자 재복역율 면에서 마약류는 절도(50.9%) 다음으로 재범률이 높은 42.1%였다(법무부, 2022).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은 처벌이 아닌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최근의 청소년들의 마약비행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2023년 1월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비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으며,<sup>6)</sup> 같은 달 정부에서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안이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sup>7)</sup> 이러한 발표 이전에 이미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실태조사를 2023년부터는 청소년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sup>8)</sup>

최근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 마약비행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관련 연구도 부족하며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비행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호기심에서 출발한 투약과 구입비용 마련을 위해 판매까지 하게 되는 청소년 마약비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약중독 사범에 대한 치료에 중점을 둔 재범억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 마약비행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 II. 미성년자 마약비행 공식통계

마약류 범죄와 마약사범에 대해 가장 상세한 현황 자료는 대검찰청이 매년 발행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와 “마약류 월간동향”이다. 이 가운데 “마약류 월간동향”은 소년사범에 해당하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한 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마약류 월간동

6) 2023년 1월 29일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ZlTJGbw9qJTGMTgyJTJGNTY3MDg5JTJGYXJ0Y2xWaWV3LmRvJTNG> (2023년 3월 7일 최종검색)

7) “최연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중독전문 의료기관 법안 발의” 2023년 1월 31일 메디포뉴스 보도. <https://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75030> (2023년 3월 7일 최종검색)

8) “조교홍 복지장관 청소년 대상 마약실태조사 내년 실시” 2022년 10월 5일 연합뉴스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5079300530> (2023년 3월 7일 최종검색)

향”의 최근 3년간의 동향을 살펴보면 <표1 >과 같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2년 마약류 사범은 총 18,395명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16,153명이며, 2020년에는 18,050명이다. 2022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의 마약류 유형을 살펴보면 향정이 가장 많은 65.4%를 차지하며, 대마는 20.7%, 마약은 13.9%로 전년대비 향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마약은 증가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단위: 명, %)

	합계	대마	마약	향정
2020년	18,050 (100%)	3,212 (17.8%)	2,198 (12.2%)	12,640 (70%)
2021년	16,153 (100%)	3,777 (23.4%)	1,745 (10.8%)	10,631 (65.8%)
2022년	18,395 (100%)	3,809 (20.7%)	2,551 (13.9%)	12,035 (65.4%)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0, 2021, 2022), 재구성

마약류 사범의 연령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법 상의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소년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의 0.9%(162명), 2021년의 1.7%(279명), 2022년의 1.8%(33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sup>9)</sup>에 57명에 비해 5.8배 이상 증가한 숫자이다.

<표 2>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연령별 구성 (단위: 명, %)

	합계	15세 미만	15-18	19	20-29	30-39	40-49	50-59	60 이상	미상
2020	18,050 (100)	2 (0.0)	160 (0.9)	151 (0.8)	4,493 (24.9)	4,516 (25.0)	3,599 (19.9)	2,423 (13.4)	2,232 (12.4)	474 (2.6)
2021	16,153 (100)	6 (0.0)	273 (1.7)	171 (1.1)	5,077 (31.4)	4,096 (25.4)	2,670 (16.5)	1,992 (12.3)	1,550 (9.6)	318 (2.0)
2022	18,395 (100)	41 (0.2)	291 (1.6)	149 (0.8)	5,804 (31.6)	4,703 (25.6)	2,815 (15.3)	1,976 (10.7)	2,166 (11.8)	450 (2.4)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0, 2021, 2022)

19세 미만 소년사범들의 마약류 유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15세 미만의 경우 향정이 50~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세~18세는 2021년 마약(54.9%)을 제외하면 2020년과 2022년에 향정이 57~72%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유형

9) 2015년까지는 자료에 제시된 연령이 15세 미만, 15세~19세로 소년법 상 미성년자가 아닌 19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의 마약사범을 비교하였다.

이었다.

<표 3> 최근 3년간 청소년 마약사범 마약류 유형 (단위: 명, %)

연도	연령	총	대마	마약	향정
2020년	15세 미만	2 (100%)	0 (0)	0 (0)	2 (100)
	15~18	160 (100%)	31 (19.4)	37 (23.1)	92 (57.5)
2021년	15세 미만	6 (100%)	2 (33.3)	1 (16.7)	3 (50)
	15~18	273 (100%)	28 (10.3)	150 (54.9)	95 (34.8)
2022년	15세 미만	41 (100%)	0 (100)	0 (100)	41 (100)
	15~18	291 (100%)	25 (8.6)	56 (19.2)	210 (72.2)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0, 2021, 2022), 재구성

미성년자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 수 있는 경찰청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 통계는 2021년 범죄발생으로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1,429, 826건이며 그 중 마약범죄는 8,088건, 마약범죄자는 10,173명이다. 2018년의 7,677명, 2019년 9,875명, 2020년 11,63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마약범죄자 10,173명 중에 미성년자(14세~18세)<sup>10)</sup>는 180명이다.

2021년 미성년자 마약사범 180명에 대한 직업, 초범여부, 처분, 공범여부, 마약사용, 범행동기, 교육, 생활정도, 부모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직업: 180명 가운데 122명(67.8%)은 학생, 39명(21.7%)은 무직, 6명(3.3%)은 기타 피고용자, 2명(1.1%)은 기타 사업, 1명은 회사원(1.1%)으로 대다수가 학생이다.
- 범수: 180명 가운데 99명(55%)은 초범자, 73명(40.5%)이 재범자로 초범의 비율이 재범보다 다소 높았다. 재범자 중에 1범은 31명, 2범은 17명, 3범은 8명, 4범은 4명, 5범은 3명, 6범은 5명, 7범은 1명, 8범은 3명, 9범이상은 1명이며 8명은 미상이다.
- 공범관계: 180명 가운데 88명(48.8%)은 단독범, 84명(46.6%)은 공범이 있어서 단독범이 다소 많았다. 공범자로는 동네친구가 35명, 기타가 31명, 학교동창이 9명, 미상이 8명, 애인이 7명, 교도소/소년원동료가 1명 이다.
- 마약투약: 180명 가운데 76명(42.2%)이 마약 사용자로, 마약의 종류를 살펴보면 마약이 37명(48.7%), 향정이 27명(35.5%), 대마가 12명(15.8%) 미상이 8명(4.4%)으로 마약사범이 가장 많았다.

10) 대검찰청 마약통계는 15세 미만, 15세~18세로 연령을 구성한 반면 경찰청 범죄통계는 소년법상의 범죄소년인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연령을 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범행동기: 호기심이 103명(57.2%), 기타가 46명(25.6%), 우발적이 11명(6.1%), 생활비가 2명(1.1%)으로 호기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 교육정도: 초등중퇴가 1명, 중학교 재중이 9명, 중학교 중퇴가 3명, 중학교 졸업이 6명, 고등학교 재중이 71명, 고등학교 졸업이 35명, 전문대 재학중이 5명, 4년제 대학 재학중이 10명으로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 생활정도: 하가 56명(31.1%), 중이 108명(60%), 상이 4명(2.2%), 미상이 12명(6.6%)이다.
- 부모관계: 실부모가 155명(86.1%), 실부무모가 4명(2.2%), 실모무부가 8명(4.4%), 실모계부가 3명(1.6%), 무부모가 1명(0.6%), 기혼이 1명(0.6%), 미상이 8명(4.4%) 등이다.

현재 국가 공식통계 상으로는 2021년 청소년 마약사범의 숫자는 332명 정도이지만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박성수와 백민석(2019)은 마약범죄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고 인지되지 않는 이른바 암수율이 높은 범죄라고 주장하며, 전문가 집단과 마약범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마약범죄 암수율은 28.57배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332명 정도가 아닌 9,485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마약사범 1,8695명 중에 34.9%가 기소되었으며 19.6%는 기소유예, 3.1%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26명(0.1%)는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다(대검찰청 a, 2022).

1심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에 4,747명 가운데 4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4.3%가 벌금형, 4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없다 (대검찰청 a, 2022).

마약류 사범의 재범이 높은 것은 마약중독자(투약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마약류범죄백서 상에 제시된 202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6.6%이며(대검찰청, 2022), 법무연감에서 제시하는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역률 가운데 가장 높은 유형은 절도로 50.9%이며, 다음으로는 마약류가 42.1%로 높았다(법무부, 2022).

### III. 청소년 마약비행에 대한 대응

#### 1. 소년원

앞서 살펴본 마약비행 관련 공식통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몇 명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한계가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입원한 소년원 생 5,913명 중에 마약류 비행으로 입원한 소년사범은 22명(0.4%)로 연 평균 7명 정도이다(박선영, 2021).

소년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마약비행으로 입원한 소년사범에 대한 처우를 알 수 있다. 현재 전국에 10개의 소년원이 있으며 모두 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인성교육 등의 기본교육과 사회복귀교육이 제공된다.<sup>11)</sup> 의료재활교육과 관련해서는 신체질환, 약물남용, 정신·발달장애 보호소년의 의학적·심리적 치료, 특수교육, 사회적응훈련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의료소년원으로 지정된 대전소년원은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은 물론 신체질환, 약물중독, 정신·발달장애 등 집중치료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소년원 외에도 각 소년원에서는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 16조(특별지도) 조항에 근거하며 특별지도 소년원생을 1호에서 9호까지 지정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7호의 경우는 “유해화학물질 및 약물남용의 경험이 있는 소년”이라고 명시하여 마약비행 청소년에 대한 처우의 근거는 마련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지금까지는 소년원에 입소한 마약사범이 많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본 통계 수치를 고려한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법무부 대응방안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비행이 증가하자 2023년 1월 2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sup>13)</sup>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다크웹과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여 마약에 대한 죄의식과 거부감이 없으며,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립학교 교원들의 마약범죄 증가 또한 청소년 마약비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하였다.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방안으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학생·청소년대상 체계적 예방교육 시행, 비행 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 구

11)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ppb.go.kr/cppb/577/subview.do> (2023년 3월 10일 최종검색)

12) 소년과 내부자료 포켓북(2021)

13) 2023년 1월 29일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Y3MDg5JTJGYXJ0Y2xWaWV3LmRvJTNG> (2023년 3월 7일 최종검색)

축,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실시, 효과적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기관 협력 확대 등이다 (표 4 참조)

<표 4>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대책

	핵심과제	주요내용
1	학생·청소년대상 체계적 예방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찾아가는 법교육에 마약예방교육을 추가</li> <li>▪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 협회 등의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콘텐츠 개발과 전문 강사 양성</li> <li>▪ 최신 트렌드에 맞는 홍보와 교육방법을 활용</li> </ul>
2	비행 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 추가</li> <li>▪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 특수분류심사 실시</li> <li>▪ 보호관찰 준수사항 개시교육시 필수적 마약예방교육 실시</li> <li>▪ 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류등급에 따른 상시 혹은 불시 약물검사 실시</li> <li>▪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끼움센터)에서의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과정 운영</li> <li>▪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사범은 교육종료 후에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상담과 치료 지원</li> </ul>
3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 상시 조사 및 모니터링</li> <li>▪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약처와의 정보공유</li> </ul>
4	효과적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기관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전문기관 연계 및 활성화</li> <li>▪ 전문강사풀 구성</li> <li>▪ 민간 전문기관을 범문화진흥선제로 지정하여 교재 및 콘텐츠 제작 지원</li> </ul>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3)

### 3. 법안 발의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계획

2023년 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은 정부에서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안이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sup>14)</sup> 마약류 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하여, 마약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14) “최연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중독전문 의료기관 법안 발의” 2023년 1월 31일 메디포뉴스 보도. <https://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75030> (2023년 3월 7일 최종검색)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sup>15)</sup> 5년마다 시행하는 마약류 실태조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조사로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마약비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조사 대상을 청소년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IV. 청소년 마약비행에 관한 선행연구

청소년 마약사범행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성인 마약사범에 대한 연구(예를 들어, 권준수 외, 2019; 김은경 외 2005; 전영실 외, 2017)와 동일하게 마약류 사범 가운데 마약중독자(투약자)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 대상 예방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소야지 외, 2000; 김태우 외, 2020; 박성수 2017; 홍경아, 2019).

이정혁과 김동욱(2018)은 청소년 마약류 남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심리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의 압력에 약하며,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마약사용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최근 마약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SNS에 친숙한 세대라는 점이 마약남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위험요인 속에서 호기심, 스트레스,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등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각성제나,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비만 치료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찾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방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 단계에서도 관련 규정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서 명시한 중독전문 치료병원 2개월~ 12개월 입원 기간은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기간이며, 특히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입원 기간도 문제이지만, 전국에 있는 22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도 증가하는 마약사범을 수용하고 역부족이라는 점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학교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한 예방교육, 개별 맞춤형 교육,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약중독자 가상 현실 치료프로그램의 활용, 처벌보다는 치료중심의 정책, 청소년 마약 중독자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시설의 운영,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마약사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15) “조교홍 복지장관 청소년 대상 마약실태조사 내년 실시” 2022년 10월 5일 연합뉴스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5079300530> (2023년 3월 7일 최종검색)



이무송(2022)은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된 ‘펜타닐 패치’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에 접하고 중독되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야외활동과 대인접촉이 줄어들면서 청소년들이 사이버 상에서의 활동이 늘어남과 동시에 SNS와 다크웹을 통해 펜타닐은 물론 각종 마약에 쉽게 접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가정의 문제(강영주, 2014), 부모의 학대(심다연과 이지하, 2014), 스트레스와 우울(김진희, 1999; 신동엽, 2014)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성인에 비해 특히 청소년들은 모방성이 강하고 또래집단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승덕과 손애리, 2015).

연구자는 이러한 특성과 최근의 마약관련 통계를 토대로,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미국의 마약수사국과 같은 강력한 통제기관이 필요하며, 청소년 대상 마약류 공급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규 유통경로인 SNS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년원이나 교도소가 마약사범의 범죄성향이 더 강해지고 판매책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약중독 사범은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전문적으로 받아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Rossman과 그의 동료들(2011)은 성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약물 남용 치료프로그램이 이들의 약물 재사용 및 재범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미국 법무부(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의 후원으로, 8개 주(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뉴욕,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23개 성인약물치료법원(Adult Drug Treatment Courts, ADTC)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1,156명)과 6개 비교집단(625명)의 약물 재사용률과 재범률을 비교하였다. 23개 ADTC에서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치료프로그램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설 내 입원 또는 집중 외래진료를 통한 약물 남용 치료와 개인·집단 상담이 제공되었으며, 비교집단은 보호관찰 하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Safer communities programs)’ 또는 ‘범죄 사이클 중단 프로그램(Breaking the Cycle program)’과 같은 통상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받았다.

두 집단에 대한 재범률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연방수사국(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과 국가범죄정보센터(The 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및 각 주 행정부의 기록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공식적인 전과기록과 연구에 참여한 시점부터 24개월 동안의 재범 기록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ADTC 프로그램 수료자들의 약물 재사용률(41%)은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된 비교집단의 마약류사범들의 약물 재사용률(58%)보다 현저히 낮았다. 두 집단에 대한 24개월 이내 재범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ADTC 프로그램 수료자들의 재범률(52%)은 비교집단(6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elenko와 그의 동료들(2022)은 청소년 대상 약물 남용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토를 위해, 소년약물치료법원(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JDTC)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일반소년법원(Traditional Juvenile Courts)의 재판절차에 따라 처리된 비교집단의 재범률과 약물 재사용률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미국 내 10개 지역에서 매칭 절차를 통해 JDTC 집단의 청소년들(201명)과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성별, 인종)과 범죄학적 특성(죄명, 전과) 등이 유사한 TJC 비교집단(136명)을 구성하였다. TJC 비교집단 청소년들은 JDTC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으나 다양한 이유(체포 당시 잠재적 참여자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프로그램에서 탈퇴를 선택한 청소년)로 참여하지 않았던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다.

두 집단의 연구대상자들은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약물 재사용 및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성이 '보통'에서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다. JDTC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평균 12개월 동안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치료, 재활 치료, 개인·그룹·가족 상담 등을 받았으며, 비교집단은 통상적인 소년사법 절차를 통해 보호관찰을 받았다. 두 집단에 대한 12개월 이내 재범률 추적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JDTC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34%)은 비교집단 청소년들(54%)보다 낮은 재범률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JDTC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들은 비교집단 청소년들보다 약물 사용을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약물 재사용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청소년에게 JDTC 프로그램을 통한 집중적인 약물 치료 및 심리치료의 개입이 이들의 약물 재사용 및 재범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 V. 미국의 청소년 마약비행에 대한 대응 사례

미국 소년사법제도(Juvenile Justice System)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유례없는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급증으로 인한 소년구금시설의 과밀화와 동종범죄의 높은 재범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전의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마약류중독 소년범의 치료와 회복 및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Belenko & Dembo, 2003). 2000년대 초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마약통제 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을 수립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교육의 시행과 마약류중독 소년범에 대한 치료적 처우 확대 등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Belenko, 2000).

### 1.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JJDPA)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JJDPA)은 미국 내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재범률 감소 및 소년범에게 적절한 교육·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6년에 제정된 연방법이다.<sup>16)</sup> JJDPA의 제정으로 의회는 주정부 및 그 하위 지방정부들에 소년범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JJDPA는 1976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2018년에 개정된 버전은 지위비행청소년의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 인종·민족 차별 문제 개선,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련한 사항들을 보완하였다.

JJDPA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는 마약류중독 소년범의 보호 및 치료와 관련하여, 주정부 및 그 하위 지방정부들의 치료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7)</sup> JJDPA Sec.102.(34 U.S.C. 11102)에 따르면, 주정부 및 그 하위 지방정부는 마약류 및 약물 사용 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발달과정과 그들의 욕구(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증거 기반 치료프로그램(약물 남용 및 행동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JJDPA Sec.103.(34 U.S.C. 11103)은 주정부 및 그 하위 지방정부가 마약류 및 약물 사용 문제를 가진 소년범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울 때 소년범의 약물 남용, 정신건강, 행동 문제 등을 일차적으로 심사하고(Screening), 이후 훈련된 전문가가 심층 면접 또는 가용한 기록 검토를 통해 소년범에 대한 약물 및 기타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Assessment)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 및 검사 과정들은 마약류 및 약물 사용 문제를 가진 소년범의 욕구(필요)를 조기 진단하고, 개별화된 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약물 남용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8)</sup>

JJDPA Sec.223.(34 U.S.C. 11133)은 주정부의 소년범 보호 및 치료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JJDPA는 주정부가 마약류 및 약물 사용 문제를 지닌 청소년을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소년범들의 약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 법원(Specialized Courts), 문제 해결 법원(Problem-Solving Courts), 가정 기반 서비스(Home-Based Services),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Community-Based Services)와 같은 전환(Diversion)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9)</sup>

또한 주정부는 의회로부터 서비스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매년 성과보고서를 소년사법 및 비행 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의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과

---

16)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https://ojjdp.ojp.gov/sites/g/files/xyckuh176/files/media/document/JJDPA-of-1974-as-Amended-12-21-18.pdf>; 2023년 3월 10일 최종검색).

17) JJDPA Sec.102.(34 U.S.C. 11102) 1. 2. 3. 4.

18) JJDPA Sec.103.(34 U.S.C. 11103) 37. 38.

19) JJDPA Sec.223.(34 U.S.C. 11133) 7.

보고서에는 소년범의 정서적·행동적 발달과정을 반영한 치료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지, 제공된 치료 또는 프로그램의 시행과정과 그 효과는 어떠한지 등의 내용을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JJDP Sec.252.(34 U.S.C. 11162)에 따르면, OJJDP는 주정부의 소년범에 대한 보호 및 치료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할 뿐만 아니라, 국영 소년사법기관 및 민영 소년보호기관의 기관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증거 기반(Evidence-based) 및 유망한(Promising) 프로그램과 프랙티스(Practices)에 대한 정보 공유,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및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 요구 사항과 프로토콜 및 모범 사례 공유 등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소년 마약치료법원(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JDTC)

소년 마약치료법원(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JDTC)은 마약류 및 약물 사용 문제를 가진 소년범의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재판절차를 대신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약물 남용 치료를 비롯하여 정신건강 및 행동 문제 치료 등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법적 통제와 치료를 통해 참여자의 약물 사용 감소와 재범 감소 및 안정적인 재사회화를 위해 전문적으로 처우하는 법원을 말한다(Belenko, Dennis, Hiller, Mackin, Cain, Weiland, Estrada, & Kagan, 2022; 강경래, 2013; 성경숙, 2021).

JDTC는 마약류 및 약물 사용 문제를 가진 소년범에 대한 형사적 제재와 치료적 처우를 융합한 효과적인 사법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Belenko et al., 2022; Chernoff, Olson, Rodriguez, O’Krepki, & Bisciglia, 2002). 미국 최초의 JDTC는 1995년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Tulare County)의 비살리아(Visalia)에 설립되었다(Belenko et al., 2022). 미국 국립마약법원자원센터(The National Drug Court Resource Centers, NDCRC)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DeVall, Lanier, & Baker, 2022), 2019년 말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356개의 JDTC가 운영되고 있으며, 3,631명의 소년범(남자: 70.3%, 여자: 29.7%)이 치료받고 있다.<sup>20)</sup>

소년사법 및 비행 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은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JJDP)에 근거하여, 주정부 및 그 하위 지방정부의 JDTC 운영을 관리·감독한다. 이를 위하여 OJJDP는 JDTC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7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Hiller, Belenko, Dennis, Estrada, Cain, Mackin, Kagan, & Pappacena, 2021). JDTC의 첫 번째 목표는 재범 감소와 약물 사용 감소 및 긍정적인 결과 증진을 위해, JDTC의 철학과 실행을 범죄 유발 요인과 약물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히

20) The National Drug Court Resource Centers, NDCRC (<https://ndcrc.org/pcp/>; 2023년 3월 12일 최종검색).

고 있다. JDTC는 문제해결법원(Problem-Solving Courts)으로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약물 사용 중단과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법원이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치료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Bureau of Justice Assistance, 2002).

JDTC는 참여자에게 약물 사용 중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참가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OJJDP는 JDTC의 두 번째 목표로 JDTC 참가 자격 기준을 준수하고 초기 심사를 시행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에게 공정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JDTC 참여자의 자격조건은 주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년범이 비폭력 중범죄(non-violent felony-level offense)를 범했고, 마약류 및 약물 사용 문제가 있으며, 재범위험성이 ‘보통’에서 ‘높음’ 수준(a moderate to high risk)이며, 14세 이상인 소년범에게 한정된다.<sup>21)</sup> JDTC 참여는 자발적이지만, 참여를 원하는 소년범은 치료계획의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약물 검사와 법원 출석 및 법원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덧붙여,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년범은 지역사회 기반(Community-Based) 프로그램에 연결하여 치료받도록 하는 전환(Diversion)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OJJDP는 세 번째 목표를 전체 팀이 참여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JDTC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JDTC는 판사를 중심으로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관, 치료전문가, JDTC 코디네이터, 학교 등이 한 팀이 되어 협력하여 소년범의 약물 치료와 사회복귀를 돕는다(Belenko & Dembo, 2003; Henggeler, Halliday-Boykins, Cunningham, Randall, Shapiro, & Chapman, 2006). JDTC의 판사는 의장(Chair person)으로서 프로그램 전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검사는 주정부를 대변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별하고 참여자의 재판 출정 등에 관여하며, 변호사는 참여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법원 밖 환경에서 참여자를 감독 및 모니터링하고, 치료전문가는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교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 기반 자원(School-based resources)을 파악하여 JDTC팀에 제공한다. JDTC 코디네이터는 판사와 나머지 팀원 간의 연락과 치료 일정 등을 관리한다.

JDTC의 네 번째 목표는 개별 사례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요구(필요)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참여자의 마약류 및 약물 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문제, 정신건강 문제,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 등을 평가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범죄 유발 요인으로서 반사회적 행동 이력, 반사회적 성격 패턴, 반사회적 인식, 반사회

---

21)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 Guidelines (<https://ojjdp.ojp.gov/programs/juvenile-drug-treatment-court-guidelines>; 2023년 3월 12일 최종검색).

적 동료, 그리고 가족, 학교, 여가시간 사용 및 약물 사용과 관련된 요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개별화된 사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치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JDTC의 다섯 번째 목표는 유관성 관리(Contingency Management),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감독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JDTC의 특성 중의 하나는 치료 과정에서 참여자가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일정한 제재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Henggeler et al., 2006; Hiller et al., 2021). JDTC 판사는 참여자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잘 협력하고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을 때, 칭찬과 격려, 법원에 출두하는 횟수 감소, 약물 검사 횟수 감소, 감독 강도의 완화 등과 같은 보상을 통해 참여자의 성취감을 높여주고, 치료 동기를 고취시킨다. 이와 반대로 참여자가 약물 치료프로그램에 불참, 약물 검사 불응 및 검사 결과 양성 반응, 판사 및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 새로운 범죄행위로 검거되는 등 프로그램의 규율을 위반할 시에 즉각적인 제재가 따른다.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반성문 작성, 약물 검사 횟수 증가, 감독 강도의 강화, 보호관찰관 면담 횟수 증가, JDTC 프로그램으로부터 탈락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재가 적용된다(Choo et al., 2016; Hiller et al., 2021).

JDTC의 여섯 번째 목표는 JDTC 참여자들에게 증거에 기반한 약물 사용 문제 치료 프로그램과 친사회적 연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JDTC는 증거 기반 치료 접근법과 치료 모델을 사용하는 치료전문가를 파악·확보하여, JDTC 참여자들에게 가족치료(Family Therapy), 동기부여 강화 치료(Motivational Enhancement Therapy), 인지행동 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등의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Hiller et al., 2021). JDTC는 참여자들의 마약류 및 약물 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 가족 문제, 학습 문제, 범죄적 사고 등 사례 관리를 통해 우선순위로 파악된 재범위험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증거 기반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한다(Belenko et al., 2022; Hiller et al., 2021).

JDTC의 일곱 번째 목표는 참여자의 프로그램 완료 및 종료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적이다. JDTC팀은 참여자가 모든 단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을 때, JDTC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사례를 검토하고 프로그램 종료를 결정한다(Rubin, Thorne, Gatowski, Miller, & Barnes, 2016). JDTC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발부하고, 검거기록의 삭제 또는 보호관찰 기간을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준다. 또한 프로그램 수료 후, 참여자가 사회 내 약물중독 치료센터에서 입원 치료, 집중 외래 치료, 거주 치료, 개인·그룹·가족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한다. 또한 JDTC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토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JDTC 수료 후 약물 또는 알코올 재사용과 재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덧붙여, 참여자가 JDTC 수료 후 학교에 재등록하였는지 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등의 자료

를 수집하고 있다.

### 3. 청소년 및 청년 재활치료 센터(Teens & Young Adult Rehab Facility)

미네소타주 플리머스(Plymouth)에 위치한 청소년 및 청년 재활센터(Teens & Young Adult Rehab Facility)는 헤이즐든 베티 포드 재단(Hazelden Betty Ford Foundation)이 운영하는 치료센터로서, 12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알코올 및 약물 중독전문 재활치료센터이다.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개별화된 증거 기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약물 중독과 함께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적 치료 접근법을 지향한다. 중독전문의와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의 약물 중독 정도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검사(Screening)한 결과에 근거하여, 치료 종류(입원 치료 또는 외래진료)가 결정된다.

청소년 환자와 가족(보호자)은 중독전문의, 정신과전문의, 가족문제 전문가, 약물중독 전문 상담사, 건강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치료팀과 함께 치료과정과 치료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계획을 세운다. 치료과정은 청소년이 자신의 약물중독 상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위하여 치료팀은 청소년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 and evaluation)를 실시한다.<sup>22)</sup> 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과 서비스로는 입원환자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재활치료(Inpatient drug and alcohol rehab), 외래환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재활치료(Outpatient drug and alcohol rehab), 외래 환자 정신건강 서비스(Outpatient mental health services), 아편계 약물 중독 치료프로그램(Opioid use disorder programs), 동물 보조 프로그램(Animal-assisted programming), 사후 치료계획(Post-treatment planning), 가족/환자 교육 및 지원(Family/parent education and support) 등이 있다.<sup>23)</sup>

### 4. 입원환자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재활프로그램(Inpatient Alcohol and Drug Rehab Program)

알코올 및 약물 재사용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입원 치료를 통해, 센터 내 알코올 또는 약물로부터 차단된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개인맞춤형 치료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중독 재활치료를 받게 된다. 환자는 입원과 동시에 치료팀으로부터 중독 약물의

---

22) Hazelden Betty Ford Foundation, Teens & Young Adult Rehab Facility in Plymouth (<https://www.hazeldenbettyford.org/locations/plymouth>; 2023년 3월 12일 최종검색).

23) Hazelden Betty Ford Foundation, Teens & Young Adult Rehab Facility in Plymouth, Inpatient and Outpatient Rehab Center for Young People Ages 12-25. (<https://www.hazeldenbettyford.org/locations/plymouth>; 2023년 3월 12일 최종검색).

종류, 약물 중독 정도,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그리고 약물 사용 이력 등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치료팀은 환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치료계획을 수립한다.<sup>24)</sup> 먼저, 중독전문의를 임상 진단에 근거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문제를 가진 환자의 뇌와 신체를 약물로부터 치유하기 위한 해독치료(Detox)가 진행된다. 해독치료는 장기간의 약물 사용을 통해 축적된 화학 물질을 뇌와 신체로부터 씻어내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불편함(두통, 불안감, 구토, 메스꺼움, 발열/오한, 근육경련, 불면증, 섬망 등) 또는 약물에 대한 갈망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치료와 처방 약(Prescribed medications)을 제공한다.

전문의료진이 24시간 해독치료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환자가 재활프로그램이나 상담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모니터링은 계속된다.<sup>25)</sup> 해독 치료를 마친 후에는 주거치료실로 이동하여 재활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입원환자를 위해 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약물 보조 치료(Medication-assisted therapies),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유관성 관리/동기부여 (Contingency management/Motivational incentives), 동기부여 강화 치료(Motivational enhancement therapy), 동기부여 인터뷰(Motivational interviewing), 대인관계 치료(Interpersonal therapy), 변증법적 행동 치료(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 문제해결 중심 치료(Solution focused therapy), 12단계 프로그램(Twelve steps program) 등이 있다.<sup>26)</sup> 센터가 제공하는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치료프로그램은 증거 기반 치료프로그램으로서 중독전문의를 감독하에서 환자가 약물 사용 문제로부터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 5. 외래환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재활프로그램(Outpatient Drug and Alcohol Rehab Program)

외래진료는 중독전문의를 및 정신과전문의를 환자의 약물 재사용 위험도가 낮고, 약물 사용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합병증이 없다고 진단했을 때 적용되는 치료과정이다. 청소년 및 청년 환자가 학교에 출석해야 하거나 직장에 출근해야 할 때 치료와 함께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은 스펙트럼 장애로 간주되는데, 이는 이 질환이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또는 중증(Severe)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래환자 치료프로그램은 약물 남용 증상이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일 때 효과적이다. 환자의 약물 중독 증상과 약물 재사용

---

24) Hazelden Betty Ford Foundation, Teens & Young Adult Rehab Facility in Plymouth (<https://www.hazeldenbettyford.org/rehab-treatment/inpatient-treatment>; 2023년 3월 13일 최종검색).

25) Hazelden Betty Ford Foundation, Drug and Alcohol Detox (<https://www.hazeldenbettyford.org/rehab-treatment/detox>; 2023년 3월 13일 최종검색).

26) Hazelden Betty Ford Foundation, Inpatient Alcohol and Drug Rehab (<https://www.hazeldenbettyford.org/rehab-treatment/inpatient-treatment>; 2023년 3월 13일 최종검색).



위험성에 대한 치료팀의 진단·평가에 근거하여, 고강도(High-intensity), 집중(Intensive), 또는 저강도(Low-intensity) 치료프로그램이 적용되며 주당 외래진료 일수와 하루 출석 시간이 결정된다. 치료센터는 다양한 수준의 외래환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며, 환자가 약물 사용 문제로부터 회복되어 갈수록 센터방문의 횟수와 프로그램 참여 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며 덜 집중적인 치료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다.<sup>27)</sup>

고강도 외래진료(High-intensity outpatient treatment)는 주간 치료 또는 부분 입원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5일에서 7일까지 하루에 최대 6시간 동안 치료받는 프로그램이다. 대체로 ‘입원환자 약물 중독 치료프로그램’을 마친 후 고강도 외래진료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집중 외래 치료(Intensive outpatient treatment)는 일주일에 3~4일 정도 치료센터에 방문하여 다양한 그룹 치료요법과 개별상담 등을 받는다. 아편계 약물 중독 문제가 있는 성소수자(LGBTQ+) 환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저강도 외래진료(Low-intensity outpatient treatment)는 약물 중독 증상 및 재사용 위험도 부분에서 안정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적합하며, 체계적인 치료 환경에서 저강도 치료프로그램으로 전환 중이거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환자에게 제공된다.<sup>28)</sup> 외래환자에 대한 치료는 입원환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요 차이점은 입원환자 치료프로그램은 24시간 실행되고 대체로 해독치료로 시작하지만, 외래환자 치료프로그램은 주당 정해진 날짜와 시간 동안 치료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외래진료의 주요 구성요소는 중독전문가와 의 일대일 상담, 집단치료, 교육 세션 등이다. 입원 및 외래진료 환자 모두에게 약물 보조 치료(Medication-assisted therapies), 변증법적 행동 치료(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 12단계 프로그램(Twelve steps program)과 같은 증거 기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입원 치료 중에는 정신 치료, 건강 및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외래 환자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별도로 제공된다.<sup>29)</sup>

## 6. 가족 프로그램 및 지원(Family Programs and Support)과 회복지원(Recovery Support)

알코올 및 약물 중독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참여(Family involvement)를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치료방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킨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환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재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족 상담, 교육, 지원 및 기타 자원을

27) Hazelden Betty Ford Foundation, Outpatient Drug and Alcohol Rehab (<https://www.hazeldenbettyford.org/rehab-treatment/outpatient-treatment>; 2023년 3월 14일 최종검색).

28) Hazelden Betty Ford Foundation, Outpatient Drug and Alcohol Rehab (<https://www.hazeldenbettyford.org/rehab-treatment/outpatient-treatment>; 2023년 3월 14일 최종검색).

29) Hazelden Betty Ford Foundation, Outpatient Drug and Alcohol Rehab (<https://www.hazeldenbettyford.org/rehab-treatment/outpatient-treatment>; 2023년 3월 15일 최종검색).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sup>30)</sup> 특히, 청소년 및 청년 환자의 가족을 위한 가상 가족 프로그램(Virtual Family Program for Family Members of Adolescents/Young Adults)은 강의, 교육 비디오, 질의응답, 동료피드백 등을 통하여, 약물 사용 문제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약물 사용 문제와 함께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 유용한 의사소통 기술 구축, 가족 회복을 위한 지원 및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sup>31)</sup> 이 외에도 치료과정을 마친 후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알코올 및 약물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의, 워크숍, 재활치료 등이 포함된 일종의 사회 재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한다.<sup>32)</sup> 개별화된 회복 코칭(Recovery coaching)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후 학교나 직장에 돌아가는 문제, 법적 문제, 양육권 문제, 전문 자격증 재발급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치료센터의 최종 목표는 환자가 알코올 및 약물 중독으로부터 회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VI. 정책제언 및 결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마약비행 현황과 미국의 대응사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소년법에 마약류중독 소년범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약류중독 사범의 약물 재사용 및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치료와 재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선제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소년법 상에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 미국의 연방 소년법인 소년사범 및 비행예방법에는 특수법원, 문제 해결 법원, 구금시설 수용 지양, 지역사회 내 치료시설 등과 같이 마약류중독 소년범 처우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캐나다 소년법의 경우에는 마약류사범은 아니지만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소년법에도 마약류 및 약물 사용 문제를 지닌 소년범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와 재범 방지 대응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

30) Hazelden Betty Ford Foundation, Family Programs and Support (<https://www.hazeldenbettyford.org/family-loved-ones/family-program>; 2023년 3월 15일 최종검색).

31) Hazelden Betty Ford Foundation, Virtual Family Program - for Family Members of Adolescent s/Young Adults (<https://www.hazelden.org/web/public/event.view?eventId=7313403>; 2023년 3월 15일 최종검색).

32) Hazelden Betty Ford Foundation, Recovery Support (<https://www.hazeldenbettyford.org/recovery>; 2023년 3월 15일 최종검색).

## 2. 소년 마약치료법원의 운영과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성인과 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치료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약치료법원을 통해 마약류중독 소년범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치료와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마약치료법원은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법, 치료모델을 소년범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성 검토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및 평가업무도 수행하고 있어서 증거기반 정책수립과 이행이 가능하다. 국가공식 통계상에서도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다. 마약류중독 사범에 대한 치료에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만큼 마약치료법원이 치료와 재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 3. 청소년 마약류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21개의 국가 지정 마약중독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기관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21개 의료기관들은 성인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사례에서 제시된 청소년에 특화된,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과정을 고려한 청소년 맞춤형 전문 치료기관들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맞춤형 전문기관에서는 미국사례에서 제시된 가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 문제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미성년자의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이 겪고 있는 약물 사용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재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 4.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통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가공식통계는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와 마약류 월간동향, 경찰청 범죄통계였다. 소년법 상에 명시된 대상이 되는 소년사범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마약류범죄백서에서는 19세 이하, 경찰청 범죄통계는 촉법소년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데이터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미성년자 마약사범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미성년자 마약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에서도 10세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연령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대검찰청 통계와 경찰청 통계에서도 소년법 상의 대상으로 연령을 통일하여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마약사범이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지역사회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지, 각 기관은 어떤 처우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치료대상자 위험성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마약치료법원의 국내 도입과 운영 및 청소년 마약류중독 전문 재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치료 대상자 선별을 위한 위험성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 법무부는 국립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와 함께 마약류중독 사범을 위한 다양한 증거 기반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약물치료법원 및 사회 내 치료센터에서 마약류중독 사범의 치료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 보조 치료, 인지행동치료, 유관성 관리/동기부여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고위험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개입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위험성 평가 도구의 개발이 선제 되어야 하며,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한 저·중·고 위험군별 관리 및 보호관찰단계에서의 재범 위험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경찰청, 범죄통계, 2022.
- 권준수, 김대진, 박영덕, 박진실, 윤정식, 윤희회, 이한덕, 조근호, 조성남, 조의연, 천기홍, 천영훈, 최정석, 2019.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 한림연구보고서.
- 김소야지 공성숙, 김명아, 2000.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9(3), 344-356.
- 김태우, 유수동, 한형서, 2020. 청소년마약류사범의 효과적인 재범예방을 위한 실증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2(2), 317-338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20, 2021, 2022.
-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0, 2022, 2022.
- 박선영, 2021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과정 개선연구』, 범죄예방정책국.
- 박성수, 2017. “청소년의 물질중독 예방전략-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7권 제4호,
- 박성수, 백민석, 2019. 마약류 범죄의 압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경찰연구 18(1), 151-170.
- 이무송, 2022. 청소년의 신종마약류 중독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2), 35-53.
- 이정혁, 김동욱, 2018.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남용에 대한 범죄실태와 대처방안. 소년보호연구, 31(4), 199-236.
- 전영실, 김슬기, 배상균, 주현경, 2017. 신종마약류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경아, 2019. 청소년 신종마약류 남용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50-55.
- Belenko, S., “Drug and Drug Policy in America: A Documentary History”, Greenwood Press, 2000.
- Belenko, S., & Dembo, R, “Treating Adolescent Substance Abuse Problem in the Juvenile Drug Court”,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Vol.26, 87-110, 2003.
- Belenko, S., Dennis, M., Hiller, M., Mackin, J., Cain, C., Weiland, D., Estrada, B., & Kagan, “The Impact of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on Substance Use, Mental Health, and Recidivism: Results from a Multisite Experimental Evaluation”, The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Vol.49, No.4, pp. 436-455, 2022.
-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Strategies for Court Collaboration With Service Communities”, 200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https://www.ojp.gov/pdffiles1/bj\\_a/196945.pdf](https://www.ojp.gov/pdffiles1/bj_a/196945.pdf), 2023.3.10.
- Choo, K., Petrosino, A., Persson, H., Fronius, T., Guckenburg, S., & Earl, K, “Juvenile

- Drug Courts: Policy and Practice Scan”, San Francisco, CA: WestEd Justice and Prevention Research Center, 2016.
- DeVall, K., Lanier, C., & Baker, “Painting the Current Picture: A National Report on Treatment Court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Drug Court Resource Center, 2022, <https://ndcrc.org/pcp/>, 2023.3.12.
- Henggeler, S. W., Halliday-Boykins, C. A., Cunningham, P. B., Randall, J., Shapiro, S.B., & Champman, J. E, “Juvenile Drug Court: Enhancing Outcomes by Integrating Evidence-Based Treatm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74, No.1, pp. 42-54, 2006.
- Hiller, M. L., Belenko, S., Dennis, M., Estrada, B., Cain, C., Mackin, J. R., Kagan, R., & Pappacena, L, “The Impact of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JDTC) Implementing Federal Evidence-Based Guidelines on Recidivism and Substance Use: Multisit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and Regression Discontinuity (RDD) Designs, *Health and Justice*, Vol.9, No.39, pp. 1-15, 2021.
-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of 1974, Public Law 93-415; 88 Stat. 1109, [https://ojjdp.ojp.gov/sites/g/files/xyckuh176/files/media/document/JJDP\\_A-of\\_1974-as-Amended-12-21-18.pdf](https://ojjdp.ojp.gov/sites/g/files/xyckuh176/files/media/document/JJDP_A-of_1974-as-Amended-12-21-18.pdf), 2023.3.10.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 Guidelines”,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2016.
- Rossman, S. B., Roman, J. K., Zweig, J. M., Rempel, M., & Lindquist, C. H, “The Multi-Site Adult Drug Court Evaluation: Executive Summary”, 2011, Urban Institute Justice Policy Center. Washington. DC. <https://www.ojp.gov/pdffiles1/nij/garants/237108.pdf>, 2023.3.10.
- Rubin, S., Thorne, W., Gatowski, S., Miller, N. B., & Barnes, E. W., “OJJDP Juvenile Drug Court Guidelines Project: Juvenile Drug Court Listening Sessions”, Reno, NV: Court Centered Change Consultants.

##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마약사범 처우 현황

배성희(법무부 소년 보호과)

### 1. 마약사범 현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23. 3. 기준 소년 마약사범은 소년원 3명, 보호관찰 대상자 23명, 수강·이수명령 대상자 5명으로 총 31명이다. 이 수치는 소년보호관찰 현 재원 10,976명 대비 0.28%로 매우 작은 인원으로 대검찰청 자료에서 전체 마약사범 청소년 중 0.1%(26명)만이 소년부 송치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소년부에 송치되어 법무부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을 제외한 대다수의 청소년 마약사범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의 기본적인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비행청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 등 처우에 반영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2. 처우 단계별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대책

법무부의 보도자료 배포 후 2023. 2.부터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일반청소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대상자에 따른 단계별 개입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는 마약범죄예방홍보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2023. 2. 7. 전국 기관에 배포하여 보호관찰소 출입 로비, 청소년 면담 대기실 등에 송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3. 4. 까지 청소년마약범죄예방 홍보영상 4편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마약사용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개입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반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이다.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에서는 2023년 일반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약 1,000개 기관으로부터 마약예방교육 신청을 받았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강사 등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마약의 위해성 등 경각심을 주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초기비행단계 비행예방교육 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한 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2시간 내외의 마약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청소년 유해약물, 약물 오용과 남용, 마약류 피해사례, 마약류로 분류된 다이어트 약품 복용 또는 거래 등 청소년 마약관련 비행 사례 등이며, 교육은 외부전문기관 등 전문 강사를 활용하고 있다. 마약류 관련 비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상담 또는 특화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독증상 등으로 상담치료 개입이 필요한 교육생은 교육 종료 후 전문기관에 상담을 연계할 계획이다.

셋째, 보호관찰소에서는 마약사범 대상자에게 조기 개입을 통한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지역 전문가 및 병원과 연계하여 단약 동기강화 및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월 1~2회 이상 정기적인 약물검사 및 불시검사를 실시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신속한 구인·보호처분 변경 등 제재조치

를 실시하여 마약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일부 보호관찰소에서는 소년마약사범 전담팀을 시범 운영하는 등 최근 증가추세인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약사범들이 채팅, SNS 등으로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점을 고려, 마약 사범 소년은 필요 시 휴대전화, 컴퓨터 수검의무 등 특별준수사항을 활용하여 범행 유인을 차단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치료 및 상담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상자는 전문기관 및 상담사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마약류 사용으로 수강·이수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하여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넷째, 소년분류심사원(위탁기능 대행 소년원)에서는 위탁 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임상심리사들을 중심으로 위탁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3. 3. 완료 예정이다. 교육은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MMPI, BGT 등 전문 심리검사를 추가하고 약물중독 선별검사(DAST-10) 실시 후 중독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 진단 및 약물치료, 임상심리사 개인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소년원에서 심사원과 동일하게 모든 보호소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마약사범이 아니더라도 마약류 경험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일대일 전문상담치료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중독 정도에 따라 5~10회기의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필수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상담을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 3. 정책제언

마약사범 관련 전문적인 치료·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표자의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마약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책임 있는 치료·상담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보호관찰소 등 법무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마약사범 대응을 위한 특수법원의 설립 및 법원 주도적인 치료와 사후관리는 장점도 있겠으나, 미국과 달리 아직은 청소년 마약사범이 소수인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을 독립 기관인 법무부에서 통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칫 법원과 법무부의 이원적인 집행으로 개입이 중복되거나 생략되고, 재범이 많은 마약사범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년법 32조 1항에 따른 6호 처분의 경우 법원이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지원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위탁생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법원에서는 6호 단독처분 보다는 보호관찰(4·5호) 처분을 병과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가 소년의 6호 처분 생활과 6호 시설 퇴소 후 생활까지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강명령 대상자를 법원에서 민간 기관에 단독으로 위탁하는 경우 대상자가 제대로 상담·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담기관에서도 의무적인 지도·감독이 병행되는 보호관찰소를 통해 상담·교육이 위탁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비행예방센터 모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전문기관과 오랫동안 연계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마약사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료·상담 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 과정 경험연구: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최미경(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과정 경험연구: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최미경(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1. 서론

내가 왜 살아있지? 나 지금 죽어있어야 하는데 나 죽어야 하는데 왜 살아있지. 나 정말 죽고 싶은데, 나 좀 죽게 놔두면 안돼, 제발? 제가 깨어나 보니 제 옆에서 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연구참여자 2의 인터뷰 중에서

일반적으로 마약은 치료제로서의 의료용 약물뿐만 아니라 강렬한 쾌락을 느끼기 위한 물질로 그 의미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의존성과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내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사용 물질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금단증상이 나타나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도 피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WHO, 1993). 마약은 우리들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기에 우리 사회는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하게 처벌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사범은 2022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체 마약류 사범 중에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대검찰청, 2022).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20대 마약류 사범은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층이 마약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재환을 중심의 정책전환과 선진국 마약 법원과 같은 치료프로그램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박진실, 2017; 박성수, 2022; 한우재 · 이신영, 2020). 우리나라는 수요감축을 위한 치료보호제도나 치료감호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마약류 중독 환자의 경우 일반 정신질환자에 비해 10배 이상의 노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기에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중독 환자는 병원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조성남, 2023:28).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사회적 계층이동의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강상준 외, 2022),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에 20대가 16.8%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국민건강 보험공단, 2021), 우리 사회에서 20대 청년 자살률은 19.2명에서 21.7명으로 12.8% 증가하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통계청, 2021). 온라인 조사로 국내외 만 18세~24세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과 물질중독

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는 청년의 우울이 약물이나 알코올, 흡연 등과 같은 물질중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장세은 외, 2022). 20대 청년층의 불법 약물사용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Johnston et al, 2020), 미국에서도 물질 중독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18-25)에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SAMHSA, 2019).

우리 사회의 청년은 취업, 연대, 친구나 가족관계도 삭막해지며 소원해지기 쉽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나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청년은 높은 취업 장벽으로 취업 스트레스가 높다(김민정 · 조궁호, 2009). 취업 스트레스는 문제성 음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경현, 2018).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사회 청년 세대가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좌절되고 절망에 내몰릴 때 불법 약물에 더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 청년의 마약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복중에 있는 20대 청년의 삶에 주목하여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 과정이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당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Giorgi(1985)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 경험이 어떠한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20대 청년이 마약에 의해 무너진 삶을 어떻게 재건하는지 당사자의 마약사용 후 변화되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술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이는 20대 청년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경험연구가 미비한 우리 사회에서 20대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 중독예방 및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는 20대 청년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 과정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 2. 이론적 배경

### 1) 마약중독의 원인

마약류 물질중독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크게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먼저,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유전적 신경학적 요인에 의한 체내 물질의 불균형이 중독에 영향을 주고, 심리적 요인으로는 성장 과정에서 충족되지 않은 다양한 심리 정서적 욕구가 약물사용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에 기반한다. 심리역동 이론에 따르면 욕구결핍을 채우기 위한 특정 욕구의 대체물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불안에 대한 방어, 구강기의 퇴행, 손상된 자아 기능의 반영으로 중독의 원인을 설명되기도 한다(조성남 외, 2021: 56). 또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중독으로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환경적 요인도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관점은 사회문화적 요소로서 가족이나 동료집단,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가족 구성원의 약물사용이나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가정환경에서 모델링과 같은 발달 과정상에서 형성되는 성격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물질적인 빈곤과 불안정한 가정생활, 가족 밖에서 성인과의 긍정적인 접촉의 부족, 약물사용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지난 지역사회 거주, 또래집단, 친구나 지인, 대중 매체나 인터넷 등과 같은 환경이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강선경·최미경, 2020; 최미경·강선경, 2022).

## 2) 20대 청년 정신건강과 마약관련 선행연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는 대부분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에 간혀 대학입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자각없이 몰아간다.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20대 초반까지의 최초의 목표이지만 계속해서 교육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대학 역시 경쟁을 기반한 출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20대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해나 자기 인정과 수용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20대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오찬호, 2013).

20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는 과도기에 있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열망하면서도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부모와 사회의 통제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기 쉽고, 이러한 취약한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중독에 빠질 수 있다(Arnett, 2000).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낮고 심리적으로도 부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민정·조궁호, 2009).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취업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도 높은 반면, 희망의 수준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취업불안의 수준을 낮추고,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개입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지명원·이주연, 2022).

마약중독 회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마약중독자의 청소년기가 원가족과의 갈등이나 폭력과 관계 깊고(김진숙, 2020; 최미경·강선경, 2022; 최미경, 2022(b)), 공통적으로 회복과정에서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만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 단절에서 오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회복 동기도 커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강선경 외, 2016; 한부식·황인옥, 2017; 임해영 외, 2018; 윤현준 외, 202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족관계와 지지는 선행연구에서 마약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바 있다(강선경 외, 2017; 강선경·최윤, 2018; 김진숙, 2020). 특히 마약류 사범은 범죄자로 취급되는 우리 사회에서 공적 지원체계가 허술하고, 마약류 환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종교활동을 통해 환대받는 경험과 기도를 통해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종교와 영성이 재기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회복자들의 삶을 통해 드러났다(임해영·김학주, 2018; 최미경·강선경, 2022). 또한, 단약을 위한 NA 자조모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최은미, 2011; 한부식·황인옥, 2017)에 따르면 같은 처지에 있는 중독 회복모임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가족이나 사회로 돌아가는 데 버팀목이 된다. 회복자들의 사회복귀 사례가 자극제가 되고, 회복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최미경, 2022(a)).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양적 연구에서 드러낼 수 없는 개인의 심리내적 갈등이나 주변환경과의 상호적용에 초점을 맞추며 회복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 실천적 정책적 개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집중된 관계로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 3. 연구방법

#### 1) Giorgi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방법으로서 하나의 연구방법론으로 그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이남인, 2014: 2019).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탐구 대상으로서의 ‘경험’과 접근 방법으로서의 ‘환원(reduction)’ 방법을 사용하여 개별적인 체험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러한 개별적인 체험들을 기반으로 한 자유 변형을 통해 경험의 본질적인 구조와 의미를 기술한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여기서 환원이란 체험의 본질적 요소를 탐구하는 연구나 분석의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이해,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의 환원은 판단중지, 에포케 등과 함께 유사한 개념을 가진다(정상원, 2022). 또한, 상상적 변형(imagiative variation)이란 현상학적 질적 분석의 방법으로서 연구 대상이 되는 체험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양한 상상, 다양한 참고의 틀, 극단적 경우와 반전된 경우, 다양한 관점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는데 유용하다(Moustakas, 1994).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통해 특정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우리의 의식이 의식 대상을 향해 있음을 논의하며(이남인, 2004), 어떤 경험이 어떤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탐구 대상으로서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을 Giorgi(1985)는 ‘개인적 경험에 대한 순수한 기술’로 표현하였다(정상원, 2022).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을 활용하여 20대 청년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초점을 두고, 마약과의 우연한 만남이 시작된 시점부터 마약으로부터 탈주 과정에 집중하여 이들에게 의미있는 사건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적 의미의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Giorgi(1985)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 2)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자는 본 연구주제에 맞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연구참여자를 추천받는 방식을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으로는 1) 현재 20대 물질중독에 빠진 후 병원 입원치료 경험이 있고, 2) NA 모임에 참여하며 퇴원 후 6개월이 지난 회복 중에 있는 중독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회복 기간은 인터뷰 시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인터뷰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로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하였고, 2~3주 정도 간격을 두고 회당 약 90분-120분 정도 2-3회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진행하였고,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	연령대	성별	단약 기간(월)	사용물질	처음 마약사용 시기
1	20대	남	6	대마, 엑스터시, 합성마약	20대 초
2	20대	남	22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10대 후반
3	20대	남	12	대마, 엑스터시, 합성마약, 필로폰	20대 초
4	20대	여	24	대마, 필로폰	20대 초
5	20대	여	20	대마, 엑스터시, 합성마약, 필로폰	20대 초

### 3)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자는 연구문제에 대한 물음을 본질구조를 밝힐 수 있는 시작으로 보았고, 20대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 과정에서 경험한 독특한 그들만의 경험으로 있는 그대로 듣고 기술하기 위해 연구자의 눈이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자료수집은 심층 면담, 참여관찰, 현장연구자 일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을 하였고, 연구참여자가 충분히 자기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린 후 내용이 명료하지 않을 때는 반 구조화된 질문으로 확인하였다. 자료수집 후 카카오톡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고, 상태를 확인한 후 2차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상의하였다. 자료 분석은 Giorgi(2009)가 제시한 5단계 분석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텍스트로 구성한 후 처음에는 인터뷰한 내용을 1회분씩 천천히 끝까지 반복해서 읽고 난 후 떠오르는 느낌을 적었다. 읽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연구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텍스트를 의미 단위로 구분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나 의미 전환에 주목하며 분류하였다.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하위범주를 정하고 공통적인 핵심내용으로 여겨지는 것을 범주명으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반성과 자유변경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의 의미 구조를 도출하며 본질적 주제를 분석하였다.

###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및 엄격성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위한 윤리교육을 받고,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구자가 준비한 연구 설명서를 하나씩 집어가며 연구참여자에게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

고 연구 도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음과 연구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고려하기 위해 개인정보는 연구참여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 수집된 구술자료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하였고,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선이해와 가정이 연구문제의 본질적 의미를 밝히는 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연구를 하는 동안 괄호치기, 다양한 자료출처를 통한 다원화(theory triangulation), 다양한 이론적 관점의 다원화(data triangulation)로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가능한 적은 편견과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자료수집을 마칠 때까지 문헌고찰을 자제하였다.

####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5명의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 경험을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로 경험의 현상들을 기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기술한 경험은 12개의 주제로 드러났고 이를 다시 4개의 본질적 주제로 묶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일상복귀 과정 경험에서 드러난 주제와 본질적 주제를 제시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상복귀과정 경험 분석결과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마약과의 악연으로 절망에 내몰리다.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접하게 된 마약
	우울과 불안함을 가려준 헛된 힘
	답답함과 지루함, 공허함을 마약으로 채움
고통 속에서 의미있는 타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다.	마약의 늪에서 허덕이다.
	죽음이 아닌 단약을 선택
	부모님 등살에 떠밀린 반강제적 치료
	사라지지 않은 금단의 고통
상처받은 '어린 나' 와 마주하다.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려준 가족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변화의 주체가 되어 회복을 이끌어간다.	타인의 시선에 위축된 자아
	단약으로 시작된 자기 직면과 변화
	회복과정에서 되찾은 성장의 의지

##### 1) 마약과의 악연으로 절망에 내몰리다.

###### (1)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접하게 된 마약

연구참여자들은 마약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약물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심리, 정서적으로 의지하거나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사촌 형들의 권유로 처음 냄새가 대마초보다 약하고 환각성이 강한 액상 마약을 하였고,

연구참여자 2는 미국유학 시절 어울려 다니던 학교 친구들의 권유로 학교에서 대마초를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가깝게 지냈던 친구나 형들이 이미 마약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중독이나 마약에 대한 부작용과 같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약물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린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면 안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작은 사 형을 쫓아다녔는데, 형에게 연락이 왔어요. 좋은 거 있다고, 처음에는 안좋았어요. 엑스터시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연구참여자 1).

사귀 친구들과 함께 다녔는데 그 친구들은 부자였어요. 그중에 한 친구와 친하게 지냈고, 그때 대마초를 알게 되었어요. 이들과 어울리려고 시작했는데, 그냥 혼자서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담배보다 약하다고 해서 걱정을 안했어요. 대마초는 치료로도 쓰이고(연구참여자 2).

마약에 호기심이 있었어요. 클럽에 갔는데 아는 형이 권했어요(연구참여자 3).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만나 공부를 하다가 처음 친구가 저에게 약물을 주었어요. 그게 대마초였고, 그때는 제가 중독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나쁜 생각도 못했고(연구참여자 4).

이 남자 만난 후 기분 전환, 약물을 하게 되면서 끌려갔던 것 같아요. 약을 줄 때도 이게 뭐 나쁜냐? 이거 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기분 전환하라고, 그래서 한번 두 번 그렇게 하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연구참여자 4)

## (2) 우울과 불안함을 가려 준 헛된 힘

연구참여자들은 마약을 사용한 후 심적 변화를 느끼며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 마약을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표현하였다. 낮가림이 심하고 성격이 소심했던 연구참여자 2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부담을 느꼈고, 어울리는 친구들 분위기에 휩쓸려서 시작한 마약은 우울을 야기하는 부정적 정서를 사라지게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자신을 그렇지 못하는 형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꼈고, 연구참여자 3은 공부만 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마약도 할 수 있는 자신을 우월하게 느꼈다. 연구참여자 1은 마약을 흡입하는 순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의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며 ‘천국’ 과 같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였다.

제가 성격이 소심해요. 대마초라도 피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수사력이나 낮가림도 없어지고 긴장감도 없어지고, 형은 친구들을 못사귀니까. 약을 못한다고 여겼어요. 친구들과 차로 데려오고 그래서 우월감을 느꼈어요(연구참여자 2).



남들 앞에서 놀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못했으니까 몸이라도 만 들어서 남들이 무시할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같이 노는 친구들이 하니까 계속했어요. 우울감이 사라지고, 친구들과 노니까 다른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개랑 친하니? 그런 소리도 듣기 좋았고(연구참여자 2).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니가 이거 하면 좋아진다고 해서 했어요. 기분도 이상하고 처음에는 안좋았어요. 엑스터시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연구참여자 1).

스트레스를 받고 지냈는데 기분이 안좋은 상태에서 해서 그런지. 저에게 잘 해줬던 사람들에게 대한 배신감, 죄책감이 있었는데 약이 올라오며 내가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구나! 나는 천국에 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어요. 약물하면서 나는 약물만 한 게 아니라 재들과 어울리는 거 싫다. 교만이 들어왔어요(연구참여자 1).

이 남자 만난 후 기분 전환, 약물을 하게 되면서 끌려갔던 것 같아요. 약을 줄 때도 이게 뭐 나쁘냐? 이거 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기분 전환하라고, 그래서 한번 두 번 그렇게 하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연구참여자 4)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나는 하니까 간질나게 사는 거다. 조다들은 공부밖에 못한다. 나는 다재다능하다(연구참여자 3).

### (3) 답답함과 지루함, 공허함을 마약으로 채움

연구참여자들은 삶에서 오는 답답함과 지루함, 그리고 공허함과 마약으로 때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참여자 3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대학을 목표로 강박적으로 공부해 왔으나 대학에 실패한 후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삶의 목표를 상실한 채 공허함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4도 마약과 함께 학교와 사회에서 느꼈던 삶의 답답함과 지루함을 견기 힘들 때 잠시나마 활기를 찾게 해주는 마약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점점 더 마약을 하는 무리들로 대인 관계가 좁아지며 삶의 지루함과 공허함을 때우며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한 놀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에 입학했지만, 삶의 목표를 상실한 채 대학교 1학년부터 대학 생활에서 멀어지며 쾌락에 이끌리고 있었다.

친구들과 못 어울리고,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죠. 시험을 못보면 인생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강박적으로 살아오다 보니 욕심은 많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지쳤어요. 원하는 대학도 못가고, 그때 출구가 없는 거예요. 삶이 공허했죠. 학교생활이 재미도 없었어요. 심심하니까 자극적인 것을 찾았죠. 삶이 기뻐야 하는데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남들은 쉽게 하고 싶은 공부하는 것 같고 세상타 했죠. 고등학교 때는 생각못했죠(연구참여자 3).

오빠~ 요즘에는 왜 재밌는 게 없지? 그 사람이 아! 사는 게 다 그렇지. 우리는 더 재밌는 게 있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연구참여자 4)

엄마가 4년제는 가야한다고 해서 점수 맞춰서 입학은 했는데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등록금만 날리고, 허송세월 보냈어요. 학교는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사회도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4)

낮에 맨정신에 깨어있으니까 공허하고 지루했어요. 이미 정신병이 온 것 같았어요. 우울, 수면 장애, 술을 마시는 데 안주, 사람이랑 마시는 게 아니라 강술을 마시는데, 집에서 말아먹고 있어요, 공허하니까 술먹고 있고 외로우면 남자 부르고, 목표가 없어서 대학교 출석을 안했어요. 학교를 만나가요. 밤일하니까 낮에는 자요(연구참여자 5).

#### (4) 마약의 늪에서 허덕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약물 복용량이 증가하였고, 약물의 내성이 생기며 약물사용이 빈번해지고 수입의 대부분을 약물구입과 유흥비에 탕진하였다. 이들은 이미 마약에 몸이 길들여진 상태에서 마약이 떨어지거나 못하게 되면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조절하지 못하고 정신과 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약에 중독이 되는구나! 알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하며 약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일상이 약이었어요. 그 남자가 수면제를 먹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먹는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자고, 일어나 음식 먹고, 일어나면 또 약하고 수면제 먹고 자고, 일어나면 또 약하고 계속 반복이었어요(연구참여자 4).

직장을 구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했는데 출퇴근이 힘들어 고시텔로 나갔어요. 마약 하려고 나간 거예요. 6개월 후에 했는데 아~ 이거지? 몸이 붕 뜨고, 너무 편하고, 노래도 좋게 들리고, 6개월 반에 재발하니까 전에 재발할 때보다 너무 심한 거예요. 직장에서 더 크게 문제 일으키고, 중독 상태가 더 심하고 약이 다 떨어지고, 못하게 되면 세상 다 잃은 느낌이 들고, 초조하고 불안했어요(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2는 강남 클럽 일을 즐기면서 쉽게 돈을 벌고, 그 업계에서 인정받음과 동시에 중독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돈, 여자, 마약’에 포로가 되어 유흥과 밤 문화생활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장소가 클럽이고, 유흥시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도 접하지 못했던 약물을 접하게 되었다. 외국에서 온 손님들은 심지어 새로운 약물을 권유하였고, 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작한 마약류에 의존하면서 점점 더 마약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기 의지로 마약을 조절하기 어렵게 되면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3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강남 클럽에서 취미삼아 일을 소개받았어요. 당시 제 주변엔 유학생 친구들, 교포, 외국인들이 무척 많았어요. 유창한 한국말과 영어로 어린 나이에 높은 매출을 올렸고,

인정받고, 빠르게 큰돈을 벌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약물이 없으면 불안하고, 술과 약물을 함께 사용했어요. 대마하면 영어도 더 잘 나오고, 여기에 엑스터시도 같이하면 사람이 방방 뜨게 변하니깐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일의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중독이 되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되었죠. 삶이 망가진 거예요(연구참여자 2).

학교생활이 엉망이었죠. 집중력이 떨어져 시험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니다~ 생각하면서 호스트 바에서 알바해서 약사고, 청약 통장까지 빼쓰고, 젊었을 때 다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들은 마약에서 깨어날 때 불안, 초조, 우울, 허탈감 등을 느끼면서도 또다시 마약을 찾게 되는 삶을 반복하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고,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며 삶을 마감하고 싶은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희망없는 상태를 ‘절망적 상황’으로 표현하였다.

사람이 피폐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정신과 약먹고, 깨기가 싫었어요. 도피죠. 직장에서 돈이 들어오면 또, 약사고, 일주일에 약하면 끝이에요.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까? 심리적 압박이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직장도 못다니고(연구참여자 1).

몇 초 후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탈하고 그랬어요. 정신은 또 약을 하고 싶은 생각과 해서 안되는 생각으로 많이 싸우다 결국은 약을 하게 되죠. 내 자신이 점점 더 작아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자해도 했어요(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2는 심각한 중독 후유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후 병원에서 깨어날 때 첫마디로 이렇게 말하였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내가 왜 살아있지? 나 지금 죽어있어야 하는데 나 죽어야 하는데 왜 살아있지. 나 정말 죽고 싶은데, 나 좀 죽게 놔두면 안돼, 제발? (연구참여자 3).

2) 고통 속에서 의미있는 타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다.

#### (1) 죽음이 아닌 단약을 선택

연구참여자들은 투약을 반복하며 극도로 망가진 상태에서도 죽음으로 몰고가는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의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참여자 5는 단약 후에도 망상이 오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자살충동까지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참여자 3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도 어느 순간 의식이 돌아올 때는

마약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지며 마약을 끊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고 표현하였다.

싸이렌 소리가 들리고, CCTV에 감시를 당하는 것 같고, 경찰이 잡으러 온다고 도망가고, 극도의 공포가 생겼어요. 환청, 피해망상, 자살충동을 느꼈어요. 약을 끊지 않으면 교도소 아니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연구참여자 5).

약에 의존하며 작대기 꽂고 사는 것도 쓰레기처럼 느껴지고,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뇌가 망가져 아무 감정도 못느꼈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깨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여기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약에서 멀어지니까 약 생각이 안나요(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4는 다시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 재발을 반복하였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약이 아니면 죽음이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살기 위해 입원을 결심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다급한 마음에 병원에 연락하여 시설에 입소한 후 일상을 되찾았다고 표현하였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시립 정신병원에 흔히 짜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피해망상이 오고 환청이 오며 집에서 저를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한 2주 만에 한 달만에 재발을 했어요. 제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제가 병원을 처음 찾아갔어요. 입원하려 할 때부터 전 단약 아니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연구참여자 4).

더는 안되겠다 싶어서 병원에서 만났던 선생님께 전화를 했어요. 다르크를 추천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살아났어요(연구참여자 3).

## (2) 부모님 등살에 떠밀린 반강제적 치료

연구참여자 4의 부모님은 금단 증세가 심해지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재발을 막기 위해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밖에서 자물쇠를 잠가야만 하였고, 마약을 끊지 않으면 교도소에 집어넣겠다는 비장한 말을 듣고 회복을 결심하기도 하였다.

나 죽는다고 했어요. 그때 문 걸어 잠그시더라구요. 나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엄마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너도 교도소 들어가고 그 사랑하고 들어가라고, 그때 제가 끊는다고 부모님과 약속했어요(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은 정신병원에 대한 선입견으로 혼란스러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을 공포스러운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아버지를 퇴원 후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났다고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들과 격리된 정신병원 독방 생활할 때 두려움과 고립감을 느꼈고, 독방 생활을 경험한 연구참여자 5는 “재발하면 안정실”을 떠올릴 정도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표현하였

다.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복수심도 생겼어요. 퇴원 후 친구들과 마약 이야기하다가 갈망이 더 왔어요. 정신병원은 회복에 도움이 안되요. 혼자 가둬놓고 통제하고, 잘 시간되면 약 먹이고(연구참여자 1).

머칠 정신병 환자처럼 혼잣말을 하며 이불 안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00병원 폐쇄병동에 4달 정도 입원을 했어요. 재입원했어요(연구참여자 2).

처음 폐쇄 병동 어떻게 갔는지 생각이 안나요. 처음에 디에타민부터 스며든 것은 다 스며들었으니까 저는 찢어져 정신 병신에 들어갔어요. 안정실에 들어가는데 안정제를 맞거나 묶이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해서 안정제 맞는다고 했어요. 그때 후회를 엄청 많이 하고, 개방(병동)으로 내려가 잘 지냈어요. 재발하면 안정실, 무서웠어요(연구참여자 5).

당시에는 억울했는데, 내 자신도, 가족도 감당 못할 때 처음에는 마약과 분리시켜야 하니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5).

### (3) 사라지지 않은 금단의 고통

연구참여자들은 마약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때는 금단이 무엇인지 느낄 수 없었으나 일상화된 마약사용을 중단할 때 오는 금단증상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마약은 정신병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중독 후 뇌의 파괴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분노 조절 장애와 우울증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 4는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다고 표현하였다.

손, 입술 떨림, 잠잘 때 가장 심했어요. 발작처럼 잠깐 경련 증상이 있고 아직도 악몽으로 깊은 잠을 못자는 증상이 있어요. 초반에는 조현병 증상 비슷한 증상이 생겼는데 한 일주일 후에 사라졌어요(연구참여자 5).

집에 있을 때 금단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단인지 몰랐어요. 그 남자와 같이 있을 때는 약을 하고 싶은 그 순간순간 다 약을 했기 때문에 금단이 없었어요. 근데 집에서 금단이 오니까 부모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그때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간도 기억력도 너무 안좋아졌어요.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나고 어느 순간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나고, 조그마한 일에도 감정 조절이 안되고 휘몰아쳐요(연구참여자 4).

쭈라가 와서 다 집어 던지고 욕하고, 화를 풀고 싶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진짜 집안을 다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파괴적인 행동이랑 증오감, 열등감을 약물로 치유한다고 생각했어요(연구참여자 1).

### (4)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려준 가족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마약중독 상태뿐만 아니라 회복 중에도 자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준 부모님이 곁에 있었기에 회복이 가능했던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녀는 회복하기 전에는 가족에 대한 추억이나 가족관계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였으나 회복이 시작되며 가족이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울타리임을 체험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휴식을 하며 자신을 동반해 준 어머니의 사랑을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으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준 어머니를 통해 회복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제가 중독을 겪고 나서 중독이었을 때도 그렇고 옆에서 다 봤잖아요. 가족들이 끈을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내 딸이 아니라고 화를 내셨지만, 어머니는 신경을 써주셨고 기다려주셨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무도 없을 때 나를 감싸주셨던 울타리. 근데 지금 생각할 때 울타리고, 글썄요. (울면서)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 회복을 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울타리고, 회복하기 전은 어, 그냥 집, 특히 떠오르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가족 모여서 사는 공간(연구참여자 4).

엄마가 남자를 만나면 또, 마약할 것 같아 밖에 못나가게 했어요. 엄마가 1년 정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초반에는 갈망도 심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일도 그만두고 저를 붙잡고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는데 그게 재발을 막아준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2와 3은 자신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중독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힘과 격려를 받아 자신감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는데 계속 재발하니까 다크에 들어가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1).

네이버 보니까 아빠 이름이 보여요. 내가 중독자니까 나도 \*\*대 입학 하신 거예요. 중독과만 들으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모두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너무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같이 대학을 다니는 걸 보니까 든든하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연구참여자 2).

어머니가 퇴직 후 중독을 공부하시겠다고, 우리 가정이 중독 가정이라..(연구참여자 3).

### 3) 상처받은 ‘어린 나’ 와 마주하다.

#### (1)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연구참여자 1은 어릴 때부터 자기 욕구를 억압하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과 아버지의 일방적인 훈육이 약물사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중독 문제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다고 여기며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다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회복되면서 생활비와 입소비 등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 변화의 이면에는 중독문제를 아버지에게 돌리고 싶었던 미성숙한 자신을 인정하며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줄어들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5도 중독문제의 요인을 부모나 가정환경 탓으로 돌렸으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인정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커지고 있었다.

제 생활비, 입소비 다 해결해주셨는데 예전에는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모님이 저를 억압하고 이거 하지마라 하는데 처음에는 따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팔 잡고 '적당히 해라' 행동으로 물건을 때려 부수고, 제가 잘못된 것은 아빠 때문이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어요. 지금 합리화시킨 거 조금씩 벗겨지고 있어요(연구참여자 1).

화류계에 빠진 것을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돈이 많고 많이 배웠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텐데 가정 탓을 했어요. 이제 내 탓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약은 내가 선택했으니까요(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3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 아버지로 인해 가정을 일으켜야 한다는 강박에 싸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강박 사고는 학교성적이 떨어지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아 스스로를 몰아대며 자신을 소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참여자 3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집착과 자기 뜻대로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이러한 그의 분노는 선택의 여지없이 적성과는 다른 힘든 공부를 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마약으로 고통을 겪은 후에는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표현하였다.

술마시면 때리고, 벌벌 떨며 살았어요. 어머니는 네가 먹여 살려라! 힘드니까 집안의 압박을 받으며 성적 떨어지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도우려고 했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화났어요. 빨리 독립하고 싶었어요(연구참여자 3).

공부하는 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집안에 돈도 없고 취업을 좋은 데 가야하고,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하고... 스트레스가 오면 주변탓만 했는데 마약으로 바닥친 후 이제는 감사하죠. 대학입학 후 풀어진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4도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할 때조차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해 온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행동한 의식 이면에는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기에 있는 그대로 자기감정을 표현하면 거절당할거라고 예단하며 자신을 억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4는 마약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았고,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제 학창시절에는 그냥 아버지, 유대관계는 전혀 없었고, 기억에 남는 것도 전혀 없고, 엄마랑 정서적으로 깊게 느낀 적은 없었어요. 엄마에게 거부당하는 느낌이 컸고 커서는 거부당하는 느낌 때문에 엄마에게 아예 이야기를 안했어요.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할 때조차도 엄마! 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어. 그런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때 기분이 높낮이가 많았어요(연구참여자 4).

분노가 올라오면 욕을 하고, 종이를 갈기갈기 찢은 종이도 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단약 후)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사랑을 많이 해주셨다고 했어요(연구참여자 4).

## (2) 타인의 시선에 위축된 자아

연구참여자들은 회복과정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시선을 외부에 두면서 내적갈등을 겪기도 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참여자 1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을 포장한 적도 있었지만, 이러한 자기기만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회복이고, 이를 반복할 경우 결국 다시 넘어지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표현하였다.

처음에는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남을 의식해서 노력하면 지치더라고요. 잘 보이고 싶어서 하면 재발해요. 원래 성격적으로 남을 의식하고 눈치를 많이 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포장해서 말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솔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4는 어머니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는 딸이 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어른스럽네’, ‘착하네’ 등과 같은 말을 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에 길들여지는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심지어 왕따를 당할 때나 자기 진로를 정할 때조차도 자기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을 때 예상되는 어머니의 반응을 미리 판단하며 어머니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불법 마약을 사용하며 자신을 믿고 있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딸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표현하였다.

챙피했어요. 잘 지내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왕따를 당한다고 했을 때 상상되는 반응이 싫었어요. 나만 말 안하면 조용히 흘러갈 거니까 그래서 조용히 지나갔어요. 저는 짜맞추면서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말을 젊잖다. 어른스럽네. 착하네.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으면서 살았어요. 어느새 제가 그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4).



저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내가 생각이 있어서 좋지만은 않았어요. 환청 망상이 엄청 컸어요. 약물하면서 깔려있는 죄책감, 죄의식, 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4).

#### 4) 변화의 주체가 되어 회복을 이끌어간다.

##### (1) 단약으로 시작된 자기 직면과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온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중독에 이르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자신의 삶을 사유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내맡기는 삶을 살다가 중독에 이르렀지만, 회복과정에서 외부 상황에 무조건 내맡김의 삶이 아닌 과거의 가치관이나 행동 패턴을 성찰하며 변화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5도 자신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진짜 행복을 위해 삶을 바꾸고 있었다.

중독자였을 때까지 제 삶은 제 가치관 행동 패턴이라든지 다른 이들의 행동을 배려하고 준 준법정신도 없고, 상대에 대한 배려도 별로 없고, 나는 내가 되는대로 산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무조건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제가 변화되어 온 가치관. 나라는 인간이 시간이 지나고, 바뀌고 내가 바뀌니까 주변 사람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약물까지 간 것 같아요.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변해야 되니까, 내가 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싶었고, 그전에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못느꼈어요. 필로폰은 한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 가치관이나 생활습관을 다 바꾸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4).

한 학기만 휴학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삶의 축 자체가 넘어가 버렸어요. 하룻밤 돈만 벌면 장땡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돈벌고, 하고 싶은 거 했어요. 단약을 하고 나서야 내 영혼이 썩어가고 있었구나! 알게 되었어요. 진짜 즐겁고 행복한 것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3도 자기 생각이나 행동이 옳다고 여기며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고집하였지만, 자신이 고집한 삶의 양식이 계속해서 재발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자기 문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4뿐만 아니라 2와 3도 중독문제가 쾌락을 추구하며 무질서하게 살아온 생활습관의 결과임을 시인하며 이를 바꾸고자 노력하였다.

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나는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3).

다 시설마다 그만의 규정과 원칙이 있었는데 내가 여러 시설을 다날 때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시설 탓만 했어요. 4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은 내 문제만 보고 바뀌어야 하는데 사람 때문이야! 하고... 후원자에게 말하면 이 사람의 문제는 신에게 맡기고, 나 자신에게

두어야 한다고 해요. 외부에 두면 남을 탓하게 되요(연구참여자 2).

마약하면서 여자관계라든지, 퇴폐적으로 살고, 가치관이 꼬였어요. 어느 순간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연구참여자 1).

## (2) 회복과정에서 되찾은 성장의 의지

연구참여자 5는 병원 퇴원 후 재발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1년 동안 집밖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표현하였다. 그녀는 남자들을 통해 중독이 되었기에 남성 중독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퇴원 후에는 마약에 빠져 심신이 망가진 자신과는 다르게 취업을 준비하는 동기들의 소식을 들을 때 열등이 느껴져서 동기들 속에 끼일 수가 없었다고 표현하였다. 중독으로 인해 연구참여자 5의 삶은 고립되었으나 회복자의 권유로 자조 모임에 참여한 후 중독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깨지며 마음의 문을 열고, 회복의 의지도 커지게 되었다.

휴학하고... 저도 고립감이 심했고, 처음에는 중독자 만나는 것도 무서웠고, 제가 남자를 통해 마약을 했잖아요. 1년 동안 SNS 보면 열등감이 생기며 재들이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며. 자존감이 상하고, 만나기 싫어서 저를 고립시키고, 중독자들과 같이 있으면 좋을 게 없다고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못했어요(연구참여자 5).

근데 00생이 지금 행복하냐고 말해서 뭐 하나도 안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나와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임이 아니구나! 편견이 깨지면서 나갔어요. 지금은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요. 중독자(회복자)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줘요. 삶이 윤택해지면 이것 잃기 싫어서라도 마약하면 안되겠구나! 생각하죠(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마약에 빠져 있을 때는 쾌락을 추구하며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았으나 단약을 시작한 후 서서히 자신에게 주어진 학업이나 일에 임하는 태도가 변하고, 책임감도 생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참여자 2와 3은 회복과정에서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태도도 변화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회복과정에서 성장하고 싶은 의지를 되찾고 있었다.

돈, 노는 것, 뭐 약하고 내일이 없었어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했어요. 방안에서는 술 먹고, 마약하고, 이제 다시 루틴을 잡고 진로도 생각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5).

내가 훨씬 잘했었는데 SNS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공부도 하고, 보이는 게 다 아니에요. 이제 각자 자기 길 가는 거야. 이쪽 길에서 잘 살아야지~ 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현재 약물을 끊지 않으면 나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2).

내면의 힘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의존적이어서 어머니 아빠가 챙겨주겠지. 여기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책임감이 생기면서 공부를 임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시험을 위한 공부였는데 이제는 꼼꼼하게 공부해요. 전공을 공부하면 자격증, 취업과 다 연결되니까요. 지금은 스트레스가 강하지 않아서 그런지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아무 문제가 안되요. 예전에는 조금만 스트레스가 느껴져도 세상탓했어요(연구참여자 3).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수틀리면 (직장을)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싶은 일의) 목표가 생기니까 책임감이 생겨요.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부모님 잔소리는 여전하기는 한데 지금은 목표가 있으니까(연구참여자 1).

제 미래의 삶이 없었기에 항상 약하는 여자를 만나고 클럽에서 하룻밤 여자를 만났으니까 미래가 없었는데, 진짜 홀로서기의 시작이에요. 가장 의미를 두는 것은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의존한다면 제가 믿는 신, 위대한 힘, 프로그램 실천, 부모님으로부터 손 안벌리는 것이 조금 큰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2는 회복과정에서 중독자들이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회복하는 방법을 몰라 재발을 반복하기에 회복을 원하는 마약중독자들이 회복프로그램을 실천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이나 재활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 5도 사회와 격리된 교도소 생활보다지역사회에서 재활하지 않도록 회복과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강조하였다.

모임과 프로그램이 학교 공부보다 더 관심이 생기고, 흥미가 느껴져요. 약물중독자에 대해 더 배우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솔직히 NA, 파란 하늘밖에 없는데 끊는 방법들을 몰라서 약을 해요. 사회 시설이나 치료보다는 범법자로 징벌을 내리려는 게 많으니까 끊으려는 마음보다는 징벌을 피하려는 마음이 많으니까 형을 살아도 치료프로그램에 대해 생겨나고 출소 후에도 방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나가야 되는데 시설도 골라서 욕구에 맞게 갔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 2).

범죄로 취급하고, 교도소에 몇 년 동안 강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건 좋지 않아요. 일정기간 좀 더 국가에서 법으로 남겨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 그게 재활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어요(연구참여자 2).

회복하려고 발악은 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징역보내는 거 의미없어요. 인생이 작살나 있는데, 회복하고 치료로 채워야 해요. 정상적인 사람만나고 차근차근 채워야 해요(연구참여자 5).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 회복 중인 20대 청년 5인의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가까운 지인을 통해 접하게 된 마약과의 악연으로 삶에서 오는 우울함과 답답함, 지루함, 공허함을 마약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일상복귀는 마약의 늪에 빠져 허덕이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단약을 결심하며 시작되었고, 재기의 디딤돌이 되어 준 가족과 조력자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과의 악연으로 절망에 내몰리다’를 통해 드러난 절망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마약중독자들이 어떤 경험들을 통해 마약의 늪에 빠져 절망하는지 이들의 경험을 들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마약에 대한 무지 상태에서 호기심과 권유 반으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우울을 사라지게 하며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마약은 연구참여자 1의 표현에 따르면 마약을 하는 그 순간의 느낌은 ‘천국’을 느끼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1, 2, 3은 자신들의 경험을 특별한 경험으로 여기며 우월감을 느꼈다. 또한, 연구참여자 3, 4, 5는 마약을 접할 당시 삶에서 오는 우울, 공허함, 지루함과 같은 감정을 직면하지 못하고, 연구참여자들은 대학교 입학 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직면해야 할 현실을 회피하며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중에 2, 3, 5는 학업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며 돈도 쉽게 벌 수 있는 클럽 일에 이끌렸으나 역설적이게도 여자들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마약에 중독이 되어 벌어들인 수입을 마약 구매를 위해 탕진하며 삶의 공허함을 느꼈다.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이 붕괴되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은 자기가 무엇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절망에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구원의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임춘갑, 2007).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연구참여자들의 마약사용은 비록 마약에 대한 무지상태에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을지라도 중독에 이르는 과정 그 자체가 자기 상실의 과정이고, 이는 곧 자신과 멀어지는 절망에 이르는 길이기에 마약중독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마약의 실체를 이해하고 어긋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일상도 복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에서 오는 우울, 지루함, 공허함을 느꼈으나 성장 과정에 사랑의 결핍을 경험했던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우울, 공허함, 답답한 마음을 마약으로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같이 청년세대의 불안, 우울, 자살 충동이 함께 급증하고 있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잇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고 20대 청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울, 불안, 상대적 박탈감 등을 가중시키는 사회구조도 문제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절망을 넘어서는 자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중독 실천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고통을 받는 내담자를 동반하기 위한 전제로 중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천가도 자기 이해를 위한 깊이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연구참여자들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심리적인 압박이나 삶에 지쳐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중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인간 절망에 대한 물음과 함께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돕는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고통 속에서 의미있는 타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다’ 를 통해 드러난 희망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마약을 계속할 때는 금단 증상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못했으나 중독이 되면서 이를 의식한 후 끊으려고 할 때는 이미 마약을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는 재발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금단의 고통은 이미 수행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내용이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우울이나 고통이라는 정서가 개인 또는 사회구조의 문제로 분리되기보다는 이 양자 간의 상호 역동속에서 개인의 희망도 발현되기에 죽음이나? 단약이나? 선택의 기로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살기 위해 단약을 선택했지만, 특히 회복 초기 금단증상이 심할 때 재발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서 안전망이란 중독이 평생 관리해야만 하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가족이나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을 위한 지지체계를 의미한다. 마약 중독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은 갈등을 증폭시켜 가출이나 비행 청소년이 되어 약물로 이어지게 하는 가장 큰 영향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족이 회복자원으로 언급되고 있다(강선경·최윤, 2019; 김진숙, 2020; 최미경·강선경, 2022; 최미경, 2022). 본 연구결과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할 때 부모는 자녀들의 중독상태를 지켜보며 항상 곁에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중독상태에서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으나 회복이 되면서 자신을 감금시킨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회복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는 연구참여자들이 단약을 결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경제적, 정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지자원으로 부모의 자원과 책임이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연구참여자 5의 어머니는 직장을 1년 휴직하고, 딸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동반하였다. 이러한 가족 자원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 5는 1년 동안 집안에서의 은둔 생활을 하며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치유될 수 있는 지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가족 자원이 없거나 오갈 곳 없는 여성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내 24시간 거주시설이 필요하다.

셋째, ‘상처받은 ‘어린 나’ 를 마주하다’ 에서 드러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부 또는 모에 의해

억눌리며 내적갈등을 겪었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의 중독문제 책임에 대해 아버지의 훈육 방식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회복과정에서 분노가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다고 표현하였지만, 상처 그 자체가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4 또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 채 어머니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었고,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할 때에도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기에 거절당할 거라고 예단하며 자기감정을 억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억눌림이나 분노가 청소년기 비행이나 성인 초기 마약에 약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최미경·강선경, 2022). 인간은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 개선을 통하여 일차적인 사랑의 욕구를 보완할 수 있고, 사회적인 소속감을 통하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에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해 마약중독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객관화시켜 성찰할 수 있도록 분노를 다루는 기술이나 관계 개선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와 공감의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2년 현재 국내에서도 마약사범이 젊은층으로 급증하면서 사회적 이슈는 부각되고 있는 반면 이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은 열악한 상태이다. 20대 청년세대가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과 단약 후 중독자들이 마약을 찾지 않도록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조력자들과 자조모임 활성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회복을 이끌어가다’에서 드러난 자기직면과 회복과정에서 되찾은 성장의 의지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마약의 세계에 빠지며 고립된 삶을 살았으나 재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삶의 전환은 20대 초에 마약에 빠진 연구참여자들이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했음에도 단약을 결심한 후 반성적인 자기 성찰과 함께 회복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마약류 관리법을 어기고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후 쾌락과 고통을 반복했음에도 가치관의 전환과 함께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며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참여자의 살아야겠다는 결단 이외도 회복을 돕는 주변의 조력자들과 함께 회복의 길을 걸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마약사범에 대한 형벌 중심의 정책보다는 치료재활적 접근이 재범 감소에 효과적이고(박진실, 2017; 박성수, 2022), 단순투약자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마약사범들을 구분하여 처벌하는 정책이 마약류 사범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외국 사례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한우재·이신영, 2020). 연구참여자 1, 3, 4, 5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병원치료 후 가정이나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며 마약과 멀어지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약물남용 치료시설이 2010년~2020년 사이에 13,339개에서 16,066개로 20% 증가했다(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SAMHSA)는 보고는 2022년 치료 재활을 위한 정부의 예산 증가없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국내 상황과는 마약정책의 기조에 차이가 있다. 우리

사회도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증가와 함께 형벌중심에서 치료재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학업 중에 있는 청년의 경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교육이 단절되지 않고 마약중독자가 단약을 결심한 후 재발을 막고 취업준비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회복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내 회복프로그램과 재활시설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대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 과정에 관한 연구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청년의 일상복귀 과정을 현상학적 질적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이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기 마약사범의 경험이나 여성 마약중독자들의 회복경험의 의미를 드러내 이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중독예방 및 회복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선경·문진영·양동현, 2016, “마약에서 탈출한 회복자들의 자기 삶 재건에 대한 연구 질적사례연구접근”, 『재활복지』, 20(1): 87-111.
- 강선경·최미경, 2020, “남성 마약중독자의 회복활동가로의 생애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2(2): 233-260.
- 강선경·최윤, 2018, “약물중독자의 회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피해의식에서 책임의식으로의 성장”,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1): 191-211.
- 강상준·권진·박수빈·이성철, 2022, 『한국의 절망사 연구: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 김진숙, 2020. “여성 마약중독자의 회복과 재발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4): 673-685.
- 김민정·조궁호, 2009,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회』, 23(4): 47~62.
- 지명원·이주연, 2022,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대학생의 취업불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회』, 9(4): 105-120.
- 대검찰청, 2021, 2022, 마약관련 통계자료. 검찰.
- 박성수, 2022, “마약류 중독예방의 범죄 활성화 방안”, 『한국중독 범죄학회』, 12(4): 71-100.
- 박진실, 2017, “마약류 사범 재발방지를 위한 해외 사례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9(3): 187-220.
- 백형의·한의영, 2014, “약물중독자의 지역사회 내 회복경험-세상에서의 되살이 경험”,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3): 151-177.
- 여성신문, 2022, “늘어나는 여성 마약 중독자...마약 회복정책에 젠더 관점을, 2022. 10.22.
-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고양: 개마고원
- 윤현준·임해영·이남경, 2021, “여성 마약중독자의 회복체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 15(1): 99-131.
- 이남인, 2004,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파주: 한길사.
- 이남인, 2019, “현상학적 질적연구 심사자를 위한 현상학과 질적연구”, 『질적연구』, 20(1): 1-14.
- 이유림, 2015, 정서적 고통의 의미와 우울의 사회적 구성-20대 명문대 여성의 정서적 고통과 우울증 경험에 대한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해영·김학주·윤현준, 2018, “회복기 마약중독자의 직업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48: 207-265.
- 임해영·김학주, 2018, 회복기 마약중독자의 영성 체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 18(11): 98-112.
- 서경현, 2018,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문제성 음주 간의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학회』, 25(6): 301-320.
- 서울연합뉴스, 점점 불행해지는 청년... 청년 죽음, 둘에 하나는 극단적 선택, 2022.04.11.
- 장세은·윤미은·김진수·김선희, Francisco Eddie Ramirez·Neil Nedeley, 국내외 청년 라이프스타일과 물질중독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6): 580-695.
- 정상원, 2022,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으로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개념 탐색, 『질적 탐구』, 8(4): 1-37.
- 조성남·강향숙·김선민·김주은·문봉규·박상규·신성만, 2021,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학지사.
- 조성남, 2023, 마약류중독 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2023.03.16.
- 최미경·강선경, 2022, “회복자로 살아가는 남성 마약중독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정담론』, 16(1): 29-61.
- 최미경, 2022(a), “치료공동체(DARC)에 입소한 마약중독자들의 회복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0(2): 170-198.
- 최미경, 2022(b), “단약 중인 마약중독자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교정담론』, 16(3): 1-31.
- 최은미, 2011, “N.A. 자조모임을 통한 마약의존자의 회복경험 탐구”, 평택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통계청, 2021,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 한부식·황인옥(2017). “약물중독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례연구-서울 부산 지역 NA 모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0 (1): 91-116.
- 한우재·이신영, 2022, “문제해결 법원의 역량과 성공적인 프로그램 이수와의 관계: 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한 한국적인 문제해결 법원 도입의 함의, 『교정담론』, 14(3): 241-275.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ennsylvani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Pennsylvania Duquesne University Press.
- Kierkegaard, S., 1985, *Krankheit zum Tode*, Gütersloh, 임춘갑 역, 『죽음에 이르는 병』, 다산 글방, 2007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lif.: Sage.
- WHO, 1993, *The ICD-10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Geneva: WHO.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 과정 경험 연구:20대 청년을 중심으로

박소연(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

최근 세계적으로 마약 이슈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마약 중독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전역에서는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을 통한 펜타닐 등의 마약 유통이 용이해지며, 마약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에 대한 확인과 함께 개인적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회복자를 연구참여자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특히, 마약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 행위이므로, 회복자들이 연구 참여에 주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회복자들을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연구자의 노하우 대해 궁금합니다.

둘째, ‘상처받은 어린 나를 마주보다’라는 주제에서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가 처방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가 아동기 부정적 경험(Child Adverse Experiences)과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은 성인기에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특히 마약 사용이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Harris, 2019)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동기 부정적 경험, 트라우마, 마약 간의 관계를 향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이 상처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회복의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약회복자를 사랑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이의 존재가 회복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라 할 것입니다. 가족 자원이 부재한 경우를 위해서는 마약회복자를 위한 24시간 거주시설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마약회복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참고문헌

Harris, N. H. (2019). *Deepest Well: Healing the Long-Term Effects of Childhood Adversity*, 정지인 역,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파주: 심심: 푸른숲.

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요인과 음주의 관계: 일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광현(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강선경(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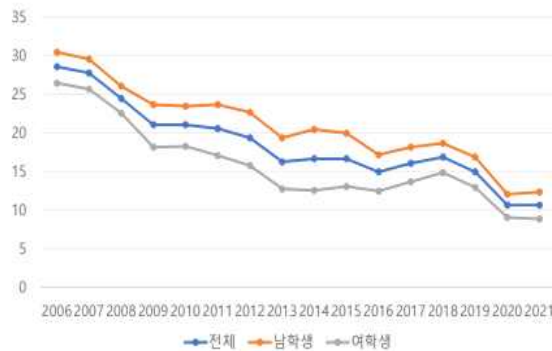
## 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요인과 음주의 관계 : 일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광현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생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  
강선경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소장)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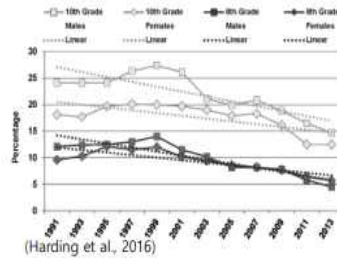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중1~고3)의 음주율(지난 30일 동안 음주 여부)은 조사 이래(2006년)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교육부·보건복지부, 2022).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06	28.6	30.5	26.5
2007	27.8	29.6	25.7
2008	24.5	26.1	22.6
2009	21.1	23.7	18.2
2010	21.1	23.5	18.3
2011	20.6	23.7	17.1
2012	19.4	22.7	15.8
2013	16.3	19.4	12.8
2014	16.7	20.5	12.6
2015	16.7	20.0	13.1
2016	15.0	17.2	12.5
2017	16.1	18.2	13.7
2018	16.9	18.7	14.9
2019	15.0	16.9	13.0
2020	10.7	12.1	9.1
2021	10.7	12.4	8.9



## 배경

- 청소년들의 유해물질 사용 감소는 단순 대한민국에 국한되거나 음주에 국한된 것은 아님.



-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음.
- 이에 최근 다수의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high income countries)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유해물질 사용 감소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Vashinishtha et al., 2020).

3

## 배경

- 왜 선진국들에서의 음주와 흡연율이 감소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기는 어려움.
- 많은 연구자들은 가설로서 부모 양육 방식의 변화와 아동·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주 및 담배 판매 규제 강화, 인터넷 문화의 발달, (유럽을 중심으로) 종교국가에서의 이민자 증가를 제시하고 있음(Holmes et al., 2018).
-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알코올 및 니코틴에 대한 규제 및 대상자 보호 정책을 완화해도 괜찮다고 제시하지만, 음주와 흡연이 특정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정신적) 취약 집단에 점차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Oldham et al., 2019).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청소년의 음주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4

## 배경

- 청소년의 알코올 섭취와 관련된 요인들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제시됨(Marshall, 2014).
- 유전적으로는 알코올 섭취에 관한 가족력(Roes et al, 2001), 유전적 알코올 민감도(Laucht et al, 2007), 심리적 조절 장애(Thatcher & Clark et al, 2008), 행동 조절 장애(Young et al, 2008) 등이 제시되고 있음.
- 환경적 요인 역시 많은 요인들이 제시되었음.
- 부모의 감독 수준 저하, 가족의 알코올 사용에의 노출, 알코올에 대한 쉬운 접근, 또래 집단의 음주 뿐 아니라 일반 또래 집단과의 강한 유대(Bremner et al, 2011)는 알코올 사용의 위험요인이었음.
- 부모의 기대와 사회참여 활동, 종교적 소속은 알코올 섭취의 보호요인이었음(Wichers et al, 2013).

5

## 배경

- 이러한 다수의 청소년 알코올 섭취 요인, 그 중에서도 개입이 용이한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 다수의 이론적 접근이 이뤄졌음.
- 특히 문제행동이론(Jessor & Jessor, 1977),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 1982), 사회통제이론(Wiatrowski, 1978) 등이 대표적임.

6

## 배경

- 그 중에서도 Merton이 제시했던 긴장(strain)에 따라 범죄가 발생한다는 긴장이론에 기반한 접근은 후의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
- 대표적으로 Agnew(1992)는 기존의 긴장이론을 발전시켜 보다 폭 넓은 긴장요인들이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불법 약물 섭취와 같은 행위로 이르게 된다는 일반긴장이론을 제시함.
- Dembo 외(1985), Scheier 외(1999)와 같은 학자들은 긴장요인이 비행에 이르기까지는 그것이 스트레스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인지된 환경(perceived environment)을 강조하여 긴장요인과 긴장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기도 했음.
-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긴장이론, 일반긴장이론에 기반하여 특히 일반긴장이론이 다루었던 부정적 정서보다는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청소년의 알코올 섭취를 살펴보고자 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긴장(strain)과 스트레스(stress)를 동일시 한 Agnew의 최근 연구(Agnew & Brezina, 2019)를 바탕으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동일시하고자 함.

7

## 배경

- Agnew(1992)는 일반긴장이론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긴장을 가족긴장(family strain), 학교긴장(school strain), 이웃긴장(neighborhood strain)으로 나누어 제시함.
- 최근의 연구(Han et al, 2020)에서는 긴장요인을 가족긴장(family strain), 또래긴장(peer strain), 학교/학업적 긴장(school/academic strain), 경제적 긴장(economic strain), 미디어긴장(media strain), 문화적 긴장(cultural strain)으로 나누는 등, 청소년의 비행 등을 야기하는 긴장요인을 어떻게 제시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8

## 배경

- 그 중에서도 Merton이 제시했던 긴장(strain)에 따라 범죄가 발생한다는 긴장이론에 기반한 접근은 후의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
- 대표적으로 Agnew(1992)는 기존의 긴장이론을 발전시켜 보다 폭 넓은 긴장요인들이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불법 약물 섭취와 같은 행위로 이르게 된다는 일반긴장이론을 제시함.
- Dembo 외(1985), Scheier 외(1999)와 같은 학자들은 긴장요인이 비행에 이르기까지는 그것이 스트레스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인지된 환경(perceived environment)을 강조하여 긴장요인과 긴장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기도 했음.
-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긴장이론, 일반긴장이론에 기반하여 특히 일반긴장이론이 다루었던 부정적 정서보다는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청소년의 알코올 섭취를 살펴보고자 함.

9

## 배경

-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긴장 유형에 대한 논의는 많은 학자들에게서 진행되었으나 명확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고재홍과 윤경란(2007)은 스트레스를 개인적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학교생활 스트레스, 환경문제 스트레스, 교우관계 스트레스로 나누어 제시했으며, 김동기와 최윤정(2012)은 부모관련 스트레스, 경제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외모관련 스트레스로 나누어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한미현과 유안진(1995)이 제시했던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에 기반하여, 아동의 스트레스를 부모 관련, 가정환경 관련, 친구 관련, 학업 관련, 학교 관련, 지역사회 관련 스트레스의 총 6개 영역의 스트레스 요인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10



## 배경

- 이처럼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 많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개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청소년 정책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책의 경우 여성가족부를 주관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18부 4처 18청 40개 중 25개의 기관이며 (여성가족부, 2022a)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22b).

### <청소년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 (25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25개를 훌쩍 넘음.

11

## 배경

-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청소년 정책이 이관된 2010년 이후 수립된 2013-2017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범부처 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 2018-2022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정책총괄·조정 강화'가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고필재, 백승훈, 김용진, 2022) 현재 심의 및 의결된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안)에서도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를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을 정도로 청소년 정책에서의 범 부처간 조정의 달성은 소원한 상태임.
- 뿐만 아니라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2015-2019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의 연계에 대한 강제성과 실효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류정희, 2016)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특히 사회서비스에서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연구(전용호 외, 2022)에서는 대상자들이 부처와 기준의 차이로 인해 사회서비스로의 접근에서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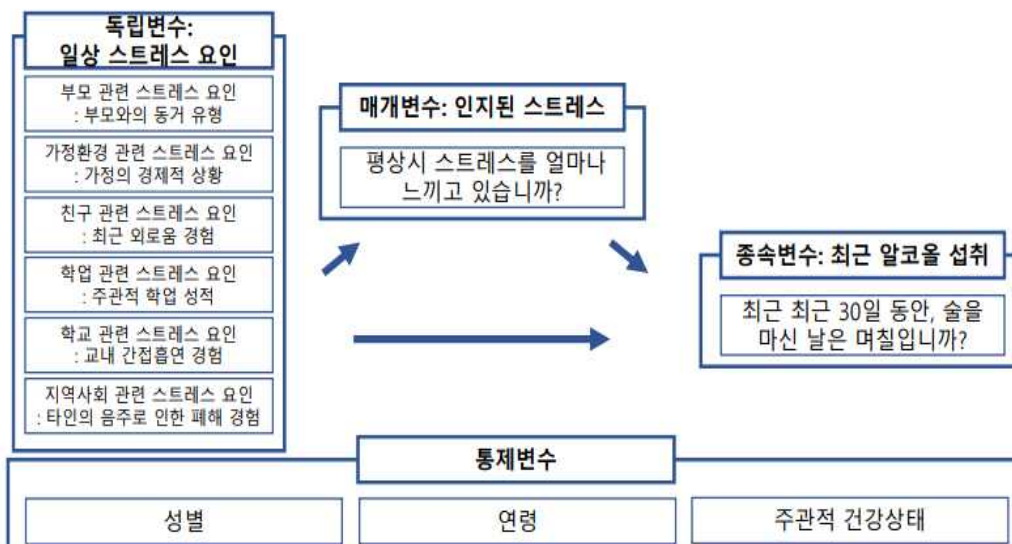
12

## 배경

- 청소년의 알코올 섭취는 청소년 그 자체의 건강,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까지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인임(Marshall, 2014).
-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의 청소년 알코올 섭취가 점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취약계층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알코올 섭취에 대한 복합적인 대응이 요구됨.
- 특히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책의 환경이 범부처 간의 협력이 약한 상태로 파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됨.

13

## 연구모형



14

## 연구방법

- Sample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조사된 대한민국 교내 청소년(중1~고3) 54,848명 중, 결측값을 제외한(가정환경 조사 거부 제외) 41,358명
- Measurement
  - 종속변수
    - 최근 알코올 섭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
      - ✓ 7점 척도 : 0=없음, 1=월 1-2일, 2=월 3-5일, 3=월 6-9일, 4=월 10-19일, 5=월 20-29, 6=매일
  - 매개변수
    - 인지된 일상 스트레스 :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 ✓ 5점 척도 : 1=전혀 느끼지 않는다 ~ 5=대단히 많이 느낀다.

15

## 연구방법

- Measurement
  - 독립변수
    - 부모와의 동거 유형 : 0=부모와 동거 없음, 1=한부모와 동거, 2=양부모와 동거
    - 가정의 경제적 상황 : 1=하, 2=중하, 3=중, 4=중상, 5=상
    - 최근 외로움 경험 : 1=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5=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 주관적 학업 성적 : 지난 12개월 간의 학업 성적 (1=하, 2=중하, 3=중, 4=중상, 5=상)
    - 교내 간접흡연 경험 : 최근 7일 동안 교내에서 다른 사람의 담배 연기를 맡아본 횟수는?  
(1=최근 7일 동안 없다, 2=주 1일, 3=주 2일, 4=주 3일, 5=주 4일, 6=주 5일, 7=주 6일, 8=매일)
    - 타인의 음주에 따른 피해 경험 4가지 (경험 유무 합산, 경험 없음=1, 경험있음=2): 범위 4~8점
      - ✓ 1) 공공장소에서의 취객에게 희롱 및 성가심, 2) 거리 취객에 대한 두려움, 3) 거리 취객에 따른 소음, 4) 취객에 의한 공공 안전 우려

16

## 연구방법

- Measurement

- 통제변수

- 성별 : 남성=1, 여성=2
- 연령(교급) : 1=중학교 1학년~6=고등학교 3학년
- 주관적 건강상태 : 1=매우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5=매우 건강한 편이다

17

## 연구결과

### 1. 기초통계량

		m	S.E.	skewness	kurtosis
종속변수	최근 알코올 섭취	.17	.62	4.902	27.989
독립변수	부모와의 동거 유형	1.83	.43	-2.460	5.523
	가정의 경제적 상황	3.37	.86	.025	.089
	최근 외로움 경험	2.52	1.06	.164	-.612
	주관적 학업 성적	3.12	1.16	-.076	-.807
	교내 간접흡연 경험	1.18	.82	6.043	40.444
매개변수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	4.67	1.01	.722	.472
	인지된 스트레스	3.28	.95	-.056	-.275
통제변수	성별	1.52	.50	-.085	-1.993
	연령	3.21	1.69	.226	-1.198
	주관적 건강상태	3.76	.90	-.393	-.392

\*정규성 가정 충족을 위해 종속변수(최근 알코올 섭취)와 독립변수(교내 간접흡연 경험)에는 Box-Cox 변환을 실시하여 분석에 활용함

18

## 연구결과

c.f. Box-Cox 변환

$$y(\lambda) = \begin{cases} \frac{y^\lambda - 1}{\lambda}, & \text{if } \lambda \neq 0; \\ \log y, & \text{if } \lambda = 0. \end{cases}$$

Common Box-Cox Transformations	
Lambda value ( $\lambda$ )	Transformed data (Y')
-3	$Y^{-3} = 1/Y^3$
-2	$Y^{-2} = 1/Y^2$
-1	$Y^{-1} = 1/Y^1$
-0.5	$Y^{-0.5} = 1/(\sqrt{Y})$
0	$\log(Y)^{**}$
0.5	$Y^{0.5} = \sqrt{Y}$
1	$Y^1 = Y$
2	$Y^2$
3	$Y^3$

19

## 연구결과

###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최근 알코올 섭취	1.000										
부모와의 통거 유형	-.066 <sup>***</sup>	1.000									
가정의 경제적 상황	-.046 <sup>***</sup>	.192 <sup>***</sup>	1.000								
최근 외로움 경험	.104 <sup>***</sup>	-.070 <sup>***</sup>	-.125 <sup>***</sup>	1.000							
주관적 학업 성적	-.091 <sup>***</sup>	.118 <sup>***</sup>	.303 <sup>***</sup>	-.070 <sup>***</sup>	1.000						
교내 감점응연 경험	.118 <sup>***</sup>	-.018 <sup>***</sup>	-.010 <sup>*</sup>	.057 <sup>***</sup>	-.015 <sup>**</sup>	1.000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	-.015 <sup>**</sup>	.003	-.027 <sup>***</sup>	.174 <sup>***</sup>	.060 <sup>***</sup>	.040 <sup>***</sup>	1.000				
인지된 스트레스	.069 <sup>***</sup>	-.051 <sup>***</sup>	-.099 <sup>***</sup>	.476 <sup>***</sup>	-.075 <sup>***</sup>	.050 <sup>***</sup>	.156 <sup>***</sup>	1.000			
성별	-.049 <sup>***</sup>	.006	-.045 <sup>***</sup>	.172 <sup>***</sup>	-.011	-.019 <sup>***</sup>	.262 <sup>***</sup>	.166 <sup>***</sup>	1.000		
연령	.175 <sup>***</sup>	-.052 <sup>***</sup>	-.142 <sup>***</sup>	.043 <sup>***</sup>	-.155 <sup>***</sup>	.097 <sup>***</sup>	.075 <sup>***</sup>	.071 <sup>***</sup>	.026 <sup>***</sup>	1.000	
주관적 건강상태	-.023 <sup>***</sup>	.056 <sup>***</sup>	.167 <sup>***</sup>	-.261 <sup>***</sup>	-.106 <sup>***</sup>	-.007	-.107 <sup>***</sup>	-.308 <sup>***</sup>	-.138 <sup>***</sup>	-.059 <sup>***</sup>	1.000

20

## 연구결과

### 3. 경로분석 결과

경로	B	S.E.	t	$\beta$
부모와의 동거 유형 → 인지된 스트레스	-.018	.010	-1.911	-.008
가정의 경제적 상황 → 인지된 스트레스	-.001	.005	-.189	-.001
최근 외로움 경험 → 인지된 스트레스	.364	.004	90.894	.404***
주관적 학업 성적 → 인지된 스트레스	-.019	.004	-5.141	-.023***
교내 간접흡연 경험 → 인지된 스트레스	.063	.013	4.996	.021***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 → 인지된 스트레스	.046	.004	11.075	.049***

주 \*: p<.05, \*\*: p<.005, \*\*\*: p<.001

21

## 연구결과

### 3. 경로분석 결과

경로	B	S.E.	t	$\beta$
부모와의 동거 유형 → 최근 알코올 섭취	-.032	.003	-9.475	-.046***
가정의 경제적 상황 → 최근 알코올 섭취	.004	.002	2.206	.011*
최근 외로움 경험 → 최근 알코올 섭취	.029	.001	20.647	.104***
주관적 학업 성적 → 최근 알코올 섭취	-.014	.001	-10.774	-.055***
교내 간접흡연 경험 → 최근 알코올 섭취	.093	.005	20.572	.099***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 → 최근 알코올 섭취	-.008	.001	-5.557	-.028***
인지된 스트레스 → 최근 알코올 섭취	.006	.002	3.512	.020***

주 \*: p<.05, \*\*: p<.005, \*\*\*: p<.001

22

## 연구결과

### 4. 매개효과분석 결과

경로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부모와의 동거 유형	-.032	-.032	.000
가정의 경제적 상황	.004	.004	.000
최근 외로움 경험	.029	.027	.002***
주관적 학업 성적	-.014	-.014	-.000***
교내 간접흡연 경험	.093	.092	.000***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	-.008	-.009	-.000***
인지된 스트레스	.006	.006	-

주 \*: p<.05, \*\*: p<.005, \*\*\*: p<.001

23

## 결론

- 전반적인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즉, 다차원적인 차원의 지표 모두와 종합적인 인지된 스트레스가 음주에 영향을 미침.
- 이처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스트레스)와 알코올 섭취라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에 있어서도 다차원적인 정책적, 실천적 개입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대표적인 예시로서는 사회복지사 배경의 Wee 프로젝트 상담교사들이 교육부 주체의 학교 현장에서 권한이 없으며(김지연 외, 2020), 교과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무시를 당하고(임성은, 2019), 업무 만족도도 낮은 문제가 있음(허난설 외, 2020).
- 이처럼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차원적인 요인에 대한 범부처적, 다기관적 연계의 강화가 이뤄져야 함.

24

## 한계

-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내 변수의 한계로 인해 각 차원의 대리변수를 설정함에 있어서 큰 한계가 있었음.
-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학교 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이용한 2차 연구이기에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에게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셋째,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일상공간 개념이 디지털 공간을 포함하여 보다 확대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일상공간 개념만을 활용하였음.

25

## Q & A

26



**‘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요인과 음주의 관계 :  
일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논평문**

양혜정(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발제문은 청소년의 음주 영향 요인으로 삶의 여러 영역의 스트레스를 규명하고자 시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살률이 악화되는 현재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구문제에 맞게 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연구문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과 음주와의 관계이지만 연구의 배경으로 청소년의 음주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주제의 시의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내용을 주요한 배경으로 다룬다면 음주를 감소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주제가 보다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이 취약집단에 집중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며, 연구모형에서 주요 변수로 취약집단 관련 변수가 사용되지 않아 이 내용 또한 연구 목적과 잘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인 ‘개별 청소년의 음주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 도출’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문제나 긴장,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자께서도 언급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변수 사용 및 연구모형에 관한 한계입니다.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분야의 양적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는 사회현상은 단일한 영향요인에 의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에 다른 변수를 개입하여 좀 더 타당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게 됩니다. 발제문의 연구모형 또한 매개효과모형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 모형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변수 간 관계성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모형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선후관계(인과성)가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모, 가정환경, 친구관련, 학업관련, 학교 관련, 지역사회관련 스트레스 요인으로 구성된 독립변수와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로 측정하

는 매개변수가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의 각 요인들을 합쳐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가 더 합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변수로 제시한 일상스트레스 요인 척도가 과연 청소년의 일상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 역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부모님이 늘 공부하라고 말씀하셔서 짜증난다.’, ‘부모님이 내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아 불만이다’라는 질문의 척도(한미현·유안진, 1995)와 비교할 때 부모와의 동거 유형으로 스트레스의 수준을 측정한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친구 관련 스트레스 요인 역시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리지 못해 불만이다’ 등으로 측정되는데 발제문에서 사용된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로 친구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변수들 또한 유사한 한계를 보이고 있어 활용하고자 하는 각 변수, 그리고 변수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주제에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각 변수들이 단일 문항으로 구성된 한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아시아교정포럼(교정담론)	생명문화연구소(생명연구)
<p>■ 논문투고 안내</p> <p>1) 발간일(마감일) 4월30일(3월15일), 8월31일(7월15일), 12월 31일(11월15일)</p> <p>2) 온라인 논문투고: 홈페이지 (<a href="http://www.correctionforum.or.kr">www.correctionforum.or.kr</a>)</p> <p>3) 논문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국·영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포함)</p> <p>4) 문의: (<a href="http://affc@naver.com">http://affc@naver.com</a>)</p>	<p>■ 논문투고 안내</p> <p>1) 발간일 2월 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원고마감: 연중 수시</p> <p>2) 온라인 논문투고: 홈페이지 (<a href="https://soganglifecult.jams.or.kr">https://soganglifecult.jams.or.kr</a>)</p> <p>3) 논문분량: 200자 원고지 100-150매</p> <p>4) 문의: (<a href="http://lifecult@sogang.ac.kr">http://lifecult@sogang.ac.kr</a>)</p>

2023 생명문화연구소·(사)아시아교정포럼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발행 2023년 3월 24일

발행인 강선경

발행처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다산관(D관 535호)

전화 02) 705-8216

홈페이지 <http://lifecult.sogang.ac.kr>

전자우편 [lifecult@sogang.ac.kr](mailto:lifecult@sogang.ac.kr)